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2026년 9월 1일 112호



칼럼 도심 흉물 '닭발 가로수' 이대로 괜찮을까 강규석(임학84)
2026년 상록의 날, 영광의 얼굴
상록문학상 우수 수필 내가 사랑하는, 네가 모인, 우리의 숲
하신희(산림환경21)
모교 중진교수 삼(蔘)을 속속들이 꿰뚫은 삼의 대가(大家)
양태진 모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
2025,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정식
동문탐방 90년 항아리가 담아내는 깊은 맛, 한국 전통
소백산 막걸리 대강양조장 대표 조재구(임학83)
모교는 지금 농학도서관 리모델링/ 4대 인물 흉상
상록, 상록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었던
씨앗 '에불' 강태선(농생물91)

커버스토리

축산·동물생명공학자의 길을 걸어오며

모교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 연구회 회장

최윤재


www.sunjin.com
여기,
선진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어떤 순간이든
마음과 마음, 선진이 잇습니다.
sunjin

회보 편집위원



발행인, 동창회장
박식순



위원장
이중용



고문
손해일

위원



김훈동



신창근



강규석



윤철희



양태진



박영준



편집국장
이혜숙



간사
조민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보

2026년 9월 1일 112호

발행일 2026년 9월 1일
발행인 박식순
발행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75-1동 207호
Tel 02-880-4525, 882-8630
H.P 010-8823-8630
Fax 02-873-8632
E-mail snunong@snu.ac.kr

편집인 이중용
디자인·인쇄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Tel 02-880-5220
정가 10,000원

동창회 홈페이지 QR코드

차례

4 권두언 모교 농학 1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동창회장 박식순(농교육77)

5 칼럼 | 농업·농촌·환경 도심 흉물 '닭발 가로수' 이대로 괜찮을까: 가로수와 공원 수목의 올바른 전정 관리 방향
모교 산림환경학 교수 강규석(임학84)

8 커버스토리 축산·동물생명공학자의 길을 걸어오며
축산바로알리기 연구회 회장 최윤재(축산73)

13 제8회 상록문학상 수필 우수작 내가 사랑하는, 네가 모인, 우리의 숲 하신희(산림환경21)

17 특집1 2026년 91학번 주관 '상록의 날'

26 모교 중진교수를 찾아서 삼(蔘)을 속속들이 꿰뚫은 삼의 대가(大家)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 양태진(원예85)

30 특집2 영광의 얼굴

33 동문탐방 90년 항아리가 담아내는 깊은 맛, 한국 전통 소백산 막걸리 대강양조장 대표 조재구(임학83)

37 상록, 상록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었던 씨앗 '에불'
강태선(농생물91)

41 특집3 2025,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정식

46 모교는 지금 농학도서관 리모델링 완공/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개관

48 재학생 소식 2026년 농생대 봄 체육대회, '농농유치원'

49 **모교 소식과 교수동정**

51 **농생대 동창회 소식과 학과 동문회 소식**

53 **동문 동정, 동문 경조사**

54 **회비, 찬조금, 기부금 납입내역**

동창회의 발자취(2026.4.1~2026.7.31.)

2026. 4. 7. 동창회 회계감사
4. 8. 2026년 상임부회장·상임이사 회의
4.23.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1학번 3차 회의
5. 1. 동창회보 제111호 발행
5. 9. 2026년 상록의 날(91학번 주관)
6. 1. 상록문화재단 소식지 제16호 발행
6.20. 2025년, 2026년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

알리는 말씀

농생대동창회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동문들께 농생대동창회 근조기를 실비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880-4525, 문자 010-8823-86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회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입금 시 '홍길동 농학 83'식으로 입금 바랍니다.

*동창회보 책자는 동창회 재정 여건상 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하는바,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계좌번호

농협 301-0068-1319-9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입금 시(홍길동 농학 83)

*기부하신 기금은 장학금 지급, 동창회보 발간사업 등에 쓰입니다.

모교 농학 1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박식순(농교육77)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

역사의 거센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 농학의 태동이자 근대 교육의 보루로 자리매김해 온 우리 모교가 올해로 개학 1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884년 갑오경장으로 서구식 근대교육의 문이 열리고, 1894년 홍범 14조를 통해 근대식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고종황제의 뜻이 결실을 보아 1904년 농상공학교관제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어 1906년 농림학교로 분리·개교한 이래 수원 캠퍼스 시대를 거쳐 1946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1992년 시대의 요구에 발맞춘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의 발전, 그리고 2003년 관악 캠퍼스 이전까지, 우리 모교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근대 교육과 학문의 발자취 그 자체였습니다.

1948년 발족한 우리 동창회 역시 모교의 첫 학장이셨던 조백현 초대 회장님을 시작으로, 언제나 모교와 운명을 같이하며 수많은 기쁨과 난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수원고농사건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애국투쟁의 선봉이었고, 해방 후에는 '녹색혁명'을 이끌며 국민을 배고픔에서 구한 시대의 구원자였습니다. 70년대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는 시대의 양심을 외치는 학생운동의 중심에 섰으며, 80~90년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습니다.

어렵게 유학길에 올라 들여온 학문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전수하시던 스승님들의 시대를 지나,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와 소프트 파워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한자리에 앉아 전 세계의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를 넘어, AI(인공지능)가 인간의 노동과 지성을 혁신적으로 재편하는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월이 인간의 땀방울과 기계, 그리고 전기의 힘으로 세상을 일구어 낸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첨단 생명과학이 결합하여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창조하는 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시대가 아무리 급변할지라도, 땅을 일구고 생명을 살리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온 우리 농생대의 '생명과 인간 중심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국가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꿋꿋이 대들보 역할을 해온 동문 여러분의 저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 거대한 변혁의 파도 앞에서도 다시 한번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농학 120주년이라는 뜻깊은 이정표 앞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오신 모든 동문과 교직원, 그리고 후배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모교와 동창회가 빛나는 유산을 바탕으로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향해 더 높이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9월
동창회장 박식순 드림

도심 흉물 '닭발 가로수' 이대로 괜찮을까

가로수와 공원 수목의 올바른 전정 관리 방향



강규석(임학84)
모교 산림환경학과 교수

가로수와 공원 나무의 가지치기(전정)는 도심 생태계 유지와 경관 조성에 필수적이지만, 무분별한 강 전정(强剪定, 강한 가지치기)은 나무의 생육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 봄철 도로를 산책하다 보면 전깃줄 간섭, 상가 간판 가림, 낙과 피해 등을 이유로 나무의 가지를 몽땅 잘라내는 강 전정(일명 '닭발 가로수')을 간혹 보곤 한다. 이는 나무의 수세(나무의 자라는 기운)를 급격히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잘린 부위에 병해충이 침투할 경우 목재 내부가 썩어 들어가는 공동(空洞) 현상을 유발한다. 닭발 가로수는 미관상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정화, 녹지 생태계 조성, 도로 분진 흡착, 소음 감소 등 공공재 성격을 띠는 가로수 본연의 기능까지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강 전정은 나무 원래의 수형(나무 모양)을 잘 살리는 자연스러운 단계별 약 전정(약한 가지치기)으로 전환해야 한다.

> 과도한 강 전정은 나무 원래의 수형(나무 모양)을 잘 살리는 자연스러운 단계별 약 전정(약한 가지치기)으로 전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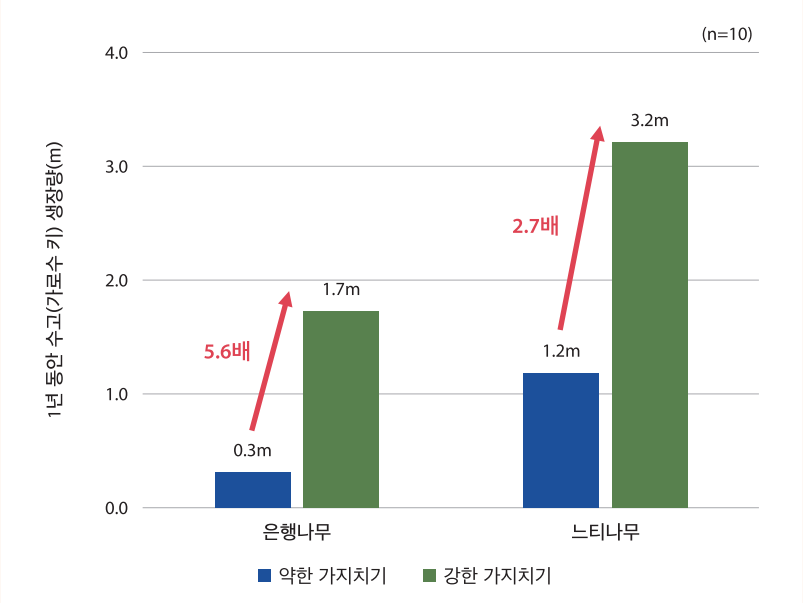
가을철 은행나무는 열매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 등으로 인해 생활 밀착형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수종이다. 그렇다고 암나무에 무조건적인 강 전정을 시행하면, 오히려 개화와 결실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굵은 가지를 제거하는 강 전정을 할 경우 가지의 절단면 주변에서 새로운 가지가 급격히 자라나기 때문에, 약 전정을 했을 때보다 1년 동안의 나무 키(수고) 생장량이 은행나무는 5.6배, 느티나무는 2.7배 더 높았다. 따라서 은행나무의 경우에는 강 전정 대신 수나무로의 교체, 열매 낙과 전 조기 채취, 친환경 해충 기피제 사용 등 근본적인 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은행나무는 어느 정도 자란 성목(成木)이 되면 가지가 뻗어나간 모양으로 암수를 대략 구별할 수 있다. 암나무는 꽃가루를 잘 받기 위해 가지가 옆으로 넓고 둥글게 퍼지는 형태를 띠는 반면, 수나무는 가지가 위를 향해 꼿꼿이 뻗





강한 전정을 시행한 '닭발 가로수'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대형화된 후
강 전정을 하기보다는,
크기가 작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전정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어 있어 전체적으로 길쭉한 원뿔형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수형의 차이는 나무가 10~15년 정도 자란 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은행나무의 암수를 감별할 수 있는 유전자 감정기법을 발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유전자 분석 방법을 활용하면 1년생 미만의 묘목이라도 잎을 채취해 DNA를 분석함으로써 어린나무의 암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나무는 가지치기 후 절단면의 크기가 클수록 상처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직경 5cm 이상의 가지를 제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직경 10cm 이상이거나 주간(主幹, 중심 줄기/기둥) 직경의 3분의 1을 넘는 가지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줄기(기둥)에서 바로 뻗어 나오는 1차 가지와 이에 연결된 2차 가지 등, 중심 줄기와 가까운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가로수의 키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자라면 강한 가지치기를 자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증가 등의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가로수가 대형화된 후 강 전정을 하기보다는, 크기가 작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전정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산림청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 관리 기준'에 따르면 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름 10㎝ 이상이거나 기둥 줄기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는 굵은 가지 등은 최대한 제



성동구 양버즘나무 사각전지 가로수 특화거리

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수준의 기준인 만큼,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는 중구난방 식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가지치기 대상 수종으로는 수고(나무 키)나 수관폭(나무 가로 너비)의 생장이 주변 도로 환경에 비해 과도하여 전선 등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나무, 고사(枯死)되어 가지가 떨어지는 등 안전 위험이 있는 가로수, 땅속 뿌리 발달이 열악하여 위험성 진단 결과 쓰러질 위험이 높아 수형 조절이 필요한 가로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식재 단계부터 주변 환경을 고려해 목표 수형을 설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수형 관리를 실행하는 가로수도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가지치기를 수행할 때는 잘라낸 가지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제거된 가지는 가급적 작업 중에 즉시 정리·운반하여 인도에 적치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산림청 고시 제2023-48호,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참고).

>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인접한 가로수와 공원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나무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기준과 전문가 분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고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와 공원수 등을 관리해 오고 있지만, 행정 관서의 사업만으로는 꼼꼼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인접한 가로수와 공원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나무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올바른 전정 관리로 건강하게 자란 나무와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행복하게 걷는 시민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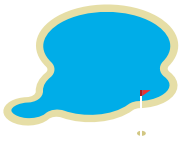
2026년

제2회

상록 친선 골프대회



※ 시상식 내용 및 세부 일정 등은 추후 참가팀에 개별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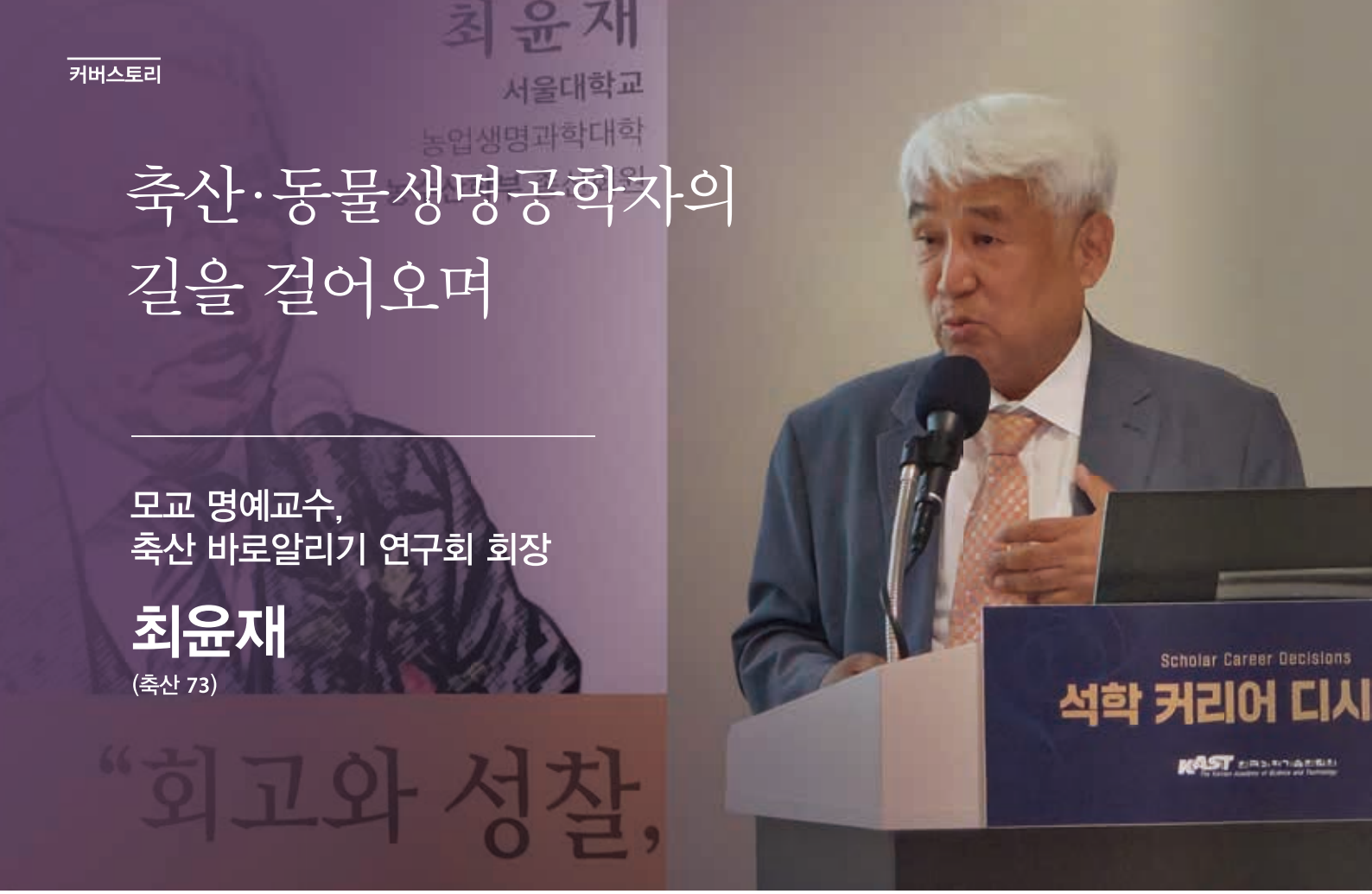
일시	**2026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소	안성 베네스트 CC
참가 팀	학과별 동창회장 추천 1팀 이상, 선착순 동아리팀 등 총 25개 팀, 팀 접수 (학과 팀 우선)
내용	18홀 라운딩 & 오찬, 석식, 시상식, 기념품 **(캐디비, 그늘집 본인 결제)**
참가비용	30만 원(라운딩비 23만 원, 카트비 10만 원, 식사비 포함됨)
신청방법	동창회 홈피 신청 링크로 접수 후 입금완료
입금 계좌	농협 301-0248-8582-91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문의	동창회 02-880-4525, 010-8823-8630

축산·동물생명공학자의 길을 걸어오며

모교 명예교수, 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회장

최윤재

(축산 73)



과학기술한림원 석학커리어 디시전스 강연

축산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야구선수가 꿈이었으나, 여러 사정과 주위의 반대로 그 꿈은 접어야 했지만 노력하는 태도만은 고스란히 남아 또 다른 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야구를 내려놓고 공부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결정이었습니다. 전공을 축산으로 정하는 데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님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후에는 농림부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방학 때마다 고향인 전북 남원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나라가 살려면 농촌이 살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축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되었고 때마침 시대적 요청도 뚜렷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차관을 들여와 축산 진흥에 힘을 쏟던 시절이라, 대한민국의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 농업과 축산에 있다는 사명감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저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까지 가며 축산학을 제 평생의 길로 결정한 데에는 대학 2학년이던 1974년 여름, 안성 한독목장(현 안성 팜랜드)에서의 실습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넓고 푸른 초원에 젖소들이 한가롭게 방목된 풍경이 그렇게 좋아서, 의무 실습이 끝난 뒤에도 따로 신청해 더 남았을 정도였지요. 그때 젖소와 한우 같은 대가축 연구에 뜻을 두었고,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대학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아래로 동생이 넷이나 있으니 어서 졸업해 취직하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당장의 형편보다 길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충분히 고민해서 정하면 바꾸지 않고, 그 선택으로 겪는 어려움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아온 태도이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은 어떠셨나요?

돌이켜 보면 제 대학 시절은 공부를 제외하면 서둔야학 활동이 소중하게 기억됩니다. 서둔야학은 서울대 농대생들이 이어받아 운영하던 야학으로, 1학년 때 교사 모집 광고를 보고 스스로 찾아가 지원했습니다. 교장을 맡고 있던 선배가 왜 하려느냐 묻기에,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제 보람이고, 특히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더 뜻깊은 일 같아서요."라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서둔야학교 학생들과 가을 소풍에서(1974)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심포지엄(2026)

렇게 동기들까지 데려가, 중학교 진학조차 어려웠던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가르쳤지요. 군 복무 기간을 빼면 학부와 석사 시절 내내, 6년 남짓 이어갔습니다.

서둔야학은 제게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몸으로 가르쳐 준 배움터였습니다. 배움이란 단지 지식을 쌓는 일을 넘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빛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 되어 준다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걷는 법을 배웠지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이 갑작스러운 군 입대입니다. 197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거의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입대했습니다. 기말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떠나는 바람에 제대 후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했지요. 당시가 10월 유신, 민청학련 사건과 잇단 긴급조치로 정국이 캄캄하던 때라, 제대로 시위에 앞장선 것도 아닌데 자칫 주동자로 몰릴 위기였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당시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간 군대였지만, 그곳은 사회의 축소판이라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며 세상을 보는 눈을 한층 넓히는 데 도움을 준 공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학생운동 이력 탓에 군대에서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저는 어디에 놓이든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기본 태도였고, 원칙을 지키니 오히려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2년 10개월의 군 복무를 원망하기보다 자기 성찰과 성숙의 시간으로 삼으려 했고, 실제로 그 시간은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다듬어 준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는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1975년 4월, 농대 축산학과 선배인 김상진 열사의 할복 소식을 시간이 지나서 들은 일입니다. 그때 군대에 있던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사건이 제 안에 민주와 통일에 대한 신념을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 계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온 뒤 김상진 기념사업회에 함께한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서울대 교수로 부임하며 가지셨던 포부는 무엇이었나요?

유학을 마치고 1988년 2월 모교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로 부임했을 때, 제 마음에는 분명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시장 개방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던 때였습니다. 저는 이 도전을 학술과 기술의 선도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통 축산과 동물생명공학을 접목해 국가와 인류에 이바지하는 것, 그것이 제가 품은 첫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산학협력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환경친화적 축산으로 농가의 수익성을 지키며,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제가 스스로 부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성과보다 서울대 교수로서 제가 끝까지 더 크게 여긴 가치는 '교육'이었습니다. 선진 학문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는 교육자가 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지요. 서울대 교수는 좋은 논문을 쓰는 학자를 넘어, 학문의 미래를 이어 갈 후속세대를 길러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 함께한 제자들이 축산업의 중요한 인재로 자리잡는 것을 보며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바람직한 축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축산이 소비자와의 소통이 부재한 채 규모화, 집

약화 같은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앞으로의 축산은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평생 추구한 것은 전통 농축산업과 첨단 동물생명공학을 융합해 축산을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 즉 생물자원산업으로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원칙은 생명공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대학원생을 받을 때 늘 "단지 생명공학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우리 연구실에 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첨단 기술을 쓰는 이유는 모두 축산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물론 그 방향은 언제나 사람과 동물, 환경과 건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One-Health)'의 철학 위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축산업이 개방과 변화의 위협을 새로운 시장과 가치 창출의 기회로 바꾸는 '상생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첨단으로 나아가되 그 뿌리를 잃지 않는 것, 지구 생명체와 지구 환경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것이 제가 그리는 축산업의 바람직한 미래입니다.

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연구회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는 2014년에 창립해 제가 회장을 맡아 왔습니다. 사실 이 활동은 정년퇴임 뒤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년퇴임 6년 전부터 준비해 온 일입니다. 우리 축산업이 구제역과 같은 각종 질병, FTA와 같은 수많은 파고를 넘어 농촌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부단한 신뢰와 애정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안티-축산' 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축산물 유해론'이 아무 제동 없이 매스컴과 서적에 퍼지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축산물 본연의 가치까지 흔들리는 현실을, 저는 그대로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축산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정년퇴임 이후에는 현역 교수 시절과 달리 훨씬 자유롭게 이런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지요. 오히려 퇴임했기에 가능해진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동물성 식품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축산을 전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대사 구조와 생리학적 원리에 더 맞는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연구회는 여러 방식으로 소비자와 만나 왔습니다. 『축산신문』에 매달 두 차례 정기적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매달 격주로 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 소식지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보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강과 세미나를 열어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축산물 바로 알리기 전국 순회 교육을, 2017년부터는 소비자, 의료인, 생산자,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뢰 회복 공동심포지엄을 매년 봄, 가을로 이어오고 있지요.

교수님께서는 학자로서 연구도 열심히 하셨지만 학교나 동창회, 또는 소속 관련 기관의 여러 행사를 주최, 기획 또는 비용 후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회적 활동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요?

저를 움직여 온 원동력은 물질적 보상보다는 마음이 먼저 따르는 대의와 명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경제적 형편으로는 교수가 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은사님과 장학제도가 없었다면 그 길을 시작할 수 없었지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니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마음, 그것이 제 모든 활동의 바탕입니다.

또 하나는 부채의식입니다. 1987년 하반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그때는 우리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교수 임용을 준비하고 연구에 매진하느라 민주화의 현장에 더 가까이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두고두고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김상진열사 추모사업회나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각종 장학문화재단 등을 후원해 왔습니다. 다만 교수의 길을 선택한 이상, 그 빚을 우선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학문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래 이어온 것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나 연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 제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제 연구실 학생들은 예외 없이 전액 장학금을 받게 했고, 정년퇴임 후 한인규 교수님이 남기신 농생대 수석입학생 장학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뜻을 잇겠다고 제가 9년 약정을 하고 이어받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는 가난한 중고등학생, 뇌성마비 대학생, 탈북 학생들에게 나눔축산운동본부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작은 응원이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지요.



모교 수석입학생 장학금 수여(2026)

시대가 급변할수록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융합과 첨단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고,
다른 하나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뿌리,
바로 '농심(農心)'입니다.

올해가 농생대 개교 120주년입니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농생대의 전신은 1906년 개설된 수원농림학교 본과이니, 올해가 농학교육 120주년이 되는 셈이지요. 저는 2016년 서울대 개교 70주년이자 농학교육 110주년이 되던 해에 '농학교육 11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을 맡아 일했으며, "농학교육 100년 이후 10년의 농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110주년 기념행사 특강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농생명과학 교육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농생교육 역사관' 건립을 제안했고, 정년퇴임 후라도 농대의 가치를 보존하는 이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꿈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제가 평창캠퍼스 추진사업단장을 맡았을 때 가장 마음 쓴 일도, 그동안 바이오텍에 치우치며 퇴색되어 가던 전통 농축산 고유의 학문 분야를 평창캠퍼스를 통해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교가 지난 120년 동안 그러했듯,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기관으로 남으려면 교육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류는 굶주림을 해결한 녹색혁명,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한 백색혁명을 거쳐, 이제 21세기 융복합 기술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생명공학(BT)과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에 AI까지 접목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지요. 농축산 교육도 이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학과의 경계를 넘어 학제 간 협력과 문제해결형 교육을 넓히고,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바꿔 가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현장 경험과 젊은 세대의 창의성·융합 역량을 조화롭게 잇는 일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시대가 급변할수록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융합과 첨단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고, 다른 하나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뿌리, 바로 '농심(農心)'입니다. 생명과 땅, 노동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그 마음을 과거의 정서가 아니라 미래 혁신의 윤리적 토대로 다시 세울 때, 비로소 책임감과 도전 정신을 갖춘 학문 후속 세대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디 후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중심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모교가 첨단 과학과 농심의 정신을 함께 품은 산실로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들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미안하고 또 고마운 것이 가족입니다. 제 지나친 완벽주의로 아내와 자식들이 힘들어했을 것이고, 일상도 너무 제 위주로 꾸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장학금을 내고 남을 계속 도우려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제가 원해서 한 일이니, 그 시간과 돈을 온전히 가족에게 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이고 고마운 것은, 가족들이 이런 제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는 저보다 더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도리어 말릴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 독립했으니, 부모로서 제가 할 일은 얼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은 사회에 베풀고 환원하며,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것을 세상에 돌려주는 길이자, 가족에게도 떳떳한 삶의 방식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가족사진(2018)(왼쪽 큰아들 가족, 오른쪽 둘째 아들 가족)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돌아보면 제 삶을 지탱해 준 두 마디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비우고 떠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과 아인슈타인의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균형을 잡으려면 부단히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둘이 결국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비우되,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제가 붙들려 하는 태도입니다.

끝으로 농축산업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국민을 위하는 일이고, 또 우리 선후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준비된 사람으로서 새롭게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려 합니다. 하루빨리 함께 일할 동료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최윤재 동문은 전북 남원에서 부친 최상범, 모친 안완철님 슬하에 2남 3녀 중 첫째로 태어나 부인 김영선과의 사이에 최*신(LG연구소 근무), 최*혁(축산업계 근무) 두 자녀를 두었다.

주요 약력

- 서울대학교 농생대 교수, 명예교수(1988년~ 현재)
- 한림원 정회원, 부원장 역임, 현재 종신회원 (1999년~ 현재)
- 농림부 ARPC 1, 2, 3대 전문위원(1995년~ 1998년)
-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 민간위원, 조분평위원(2002년~2006년)
- 환경부 환경기술진흥원 이사회 이사(2002년~2009년)
-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2014년 7월 ~ 현재)
- 나눔축산운동본부 이사(2014년 ~ 현재)

주요 수상

- 1966년, 2002년 과학기술우수논문상(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1996년 학술상(한국영양사료학회)
- 1999년 영양사료연구대상(한국영양사료학회)
- 1999년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학술상(한국동물자원과학회)
- 2014년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201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발(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제1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한국과학기술한림원)
- 2018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서울대학교)
- 2019년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서울대학교 농생대 동창회)
- 2023년 자랑스러운 성남인상(성남고등학교 동창회)

내가 사랑하는, 네가 모인, 우리의 숲



하신희(산림환경21)

마치 산 하나를 머릿속에 욱여넣는 것 같았다. 백 그루가 넘는 나무의 이름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이 나무의 이름은?'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큰 책상을 옹기종기 둘러쌌다. 가을의 숲을 옮겨온 듯 지펴백에서 나뭇잎이 우르르 쏟아진다. '툭 치면 나와야지. 시험 가면 떨려서 더 생각이 안 난다니까.' 나뭇잎을 손에 쥐고 여기저기 괴로운 신음이 울린다. '아, 이거 아는데. 은별이가 제일 좋아하는 나문데.' 나는 고개를 돌려 나뭇잎을 둘러싼 무리 가운데에 꼈다. 작은 나뭇잎에 가까이 다가가 한참을 골똘해진다. '이 나무가 뭔데 은별이가 제일 좋아해?' 마치 가죽처럼 잎면을 촘촘히 덮고 있는 잎맥이 인상적이었다. 분명 산 어딘가에서 본 나무일 텐데. '이 나무는 뒤집으면 바로 알아.' 나뭇잎을 손에 든 사람이 잎자루를 잡고 나뭇잎을 빙글 돌린다. 진하고 촘촘한 잎맥이 잎 뒷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분명 보기 드문 독특한 모양인데.

매주 새로운 나무를
직접 보기 위해 등산화를 신었고
그날 나와 마주친 나무들은
운명적이게도 다음 주
시험 범위가 되었다. 그렇게 매주
수십 그루의 나무가 나에게
그냥 나무에서 상수리나무,
서어나무, 까치박달나무가 되었다.
그냥 초록색 나뭇잎에서
마주나기며 크기가 크고
거치가 날카로운 잎이 되었다.

나무의 이름과 학명을 외우는 일은 매번 벅찼다. 매주 새로운 나무를 직접 보기 위해 등산화를 신었고 그날 나와 마주친 나무들은 운명적이게도 다음 주 시험 범위가 되었다. 그렇게 매주 수십 그루의 나무가 나에게 그냥 나무에서 상수리나무, 서어나무, 까치박달나무가 되었다. 그냥 초록색 나뭇잎에서 마주나기며 크기가 크고 거치가 날카로운 잎이 되었다. 그냥 근처에서 자주 본 것 같은 나무는 왜 거기에 많이 있는지 그만의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로소 내가 그를 알아보면 이름과 이야기를 가진 고유한 나무가 되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최애 나무를 하나씩 만들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마음속에서 생겨났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다.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수백 그루를 만지고 찍고 들여다봤으므로, 수백 개의 잎에 파묻혀 그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외우려 그토록 애를 썼으므로. 누군가의 최애 나무로 발탁된 나무들은 어딘가 예쁜 구석이 있었다. 어딘가 그 사람과 닮은 구석이 있었다. 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예쁜 사시나무, 줄기가 곧고 단단하여 안정감을 주는 화백나무, 이름이 다정한 다정큼나무. 아 그래, 다정큼나무였다. 은별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무는. '다정큼나무!' 나는 여러 사람의 입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나무 후보를 뚫고 외쳤다. '오 어떻게 알았어?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은별이는 유독 다정하잖아.' 모두 웃었다. 그냥 찍은 거 아니냐고 나무라는 사람 하나 없이 그건 그렇지 하며 웃었다. 꼭 그런 사람들만 수목학을 들었다.

3시간 후면 시험이었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번 주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 교수님의 호통 소리가 벌써 아득히 달려오고 있는 것만 같다. 3시간이라. 정답을 맞힌 특전으로 내 손에는 다정큼나무의 잎이 들려있었다. 운이 따라준다



AI 작성 이미지

면 다정한 은별이 전략이 통할지도 몰라. 나는 학명이 주르륵 적힌 표에서 시선을 떼어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모두 즐거워 보였다. 묘한 긴장감을 서로 공놀이하듯 주고받으며 잎을 들고 골똘한 모습이 왜인지 즐거워 보였다. 방금까지 학명을 끄적이던 노트의 중간을 아무렇게나 펼쳤다. 필통 구석에 굴러다니던 4B연필을 들고 길게 잡았다. 먼저 네모난 책상을 그리고 책상을 둘러싼 사람들 자리에 하나씩 나뭇잎을 그려나갔다.

퀴즈를 내고 있는 너는 신갈나무. 신갈나무는 우리 중에 대장이었고 언제나 퀴즈 1등이었다. 대체 언제 공부를 하는 건지 내가 본 신갈나무는 언제나 선생님이었다. '이건 무슨 나무야?' 하는 소리가 산에서 울리면 그 질문은 언제나 신갈나무를 향하는 거였다. 그러다가 새로운 나무가 나오면 가장 먼저 공부해서 모두를 모아 퀴즈쇼를 열어주는 것도 언제나 신갈나무였다. 물어봤던 것을 10번째 다시 물어도 신갈나무는 웃으며 나무랐다. 다정하게 나무랄 줄 아는 나무, 아니 사람이었다. '오빠는 신갈나무가 왜 좋아?' 하고 물었을 때 신갈나무는 말했다. '잘 크면 정말 크고 굵게 자라거든.' 나는 산속 커다란 신갈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만약 우리라는 숲이 있다면 그 안에서 가장 크고 굵은 나무는 신갈나무. 기대고 오르고 매달려도 거뜬히 웃으며 나무랄 커다란 신갈나무. 그가 서 있는 자리에 크고 거치가 구불구불한 잎을 그린다.

신갈나무가 내는 퀴즈를 족족 틀리고 있는 너는 딱총나무. 딱총나무는 산에서 내내 딱총나무 줄기를 휘둘렀다. 왜 딱총나무가 좋으냐고 물어볼 것도 없이 그는 한껏 들뜬 얼굴로 말했다. '이게 해리포터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야.' 나뭇잎을 채집할 때는 저 멀리에서 조잘조잘 말소리만 들려주던 그가 처음으로 전지가위를 찾아들고 반듯한 딱총나무 앞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은 정말이지 사뭇 진지했다. '예쁘게 잘라야만 해.' 그렇게 끝이 반듯하게 잘린 딱총나무 지팡이는 아직도 그의 가방에 꽂혀있다.

10월의 태백은 추웠다. 비 내리는 산은 축축했지만 산 정상에만 있는 나무를 봐야 한다고 했다. 춥고 비 오는 산에 등산객은 없었다. 가끔 색동 한복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한 무당들만 하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산을 올라야 했다. 어느 시점부터 다들 묵묵히 다리만 움직였다. 그때 노랫소리가 들렸다. 딱총나무였다. 그는 마

치 딱총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마법을 부린 것처럼 모두를 일제히 웃겼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타고 딱총나무는 나무 이름 맞추기 만담을 시작했다. '자, 이 나무가 뭐냐.' 낮은 온도에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일순 깨어났다.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다. 함께이므로. 걸음이 웃음을 타고 넘어갔다. 딱총나무가 서 있는 자리에 거치가 날카로운 복엽의 잎을 그린다.

책상 구석에서 한참을 중얼거리던 아이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이제 거의 다 외웠어. 나도 맞출 수 있어. 눈 아래 다크서클이 역력하다. 유독 반짝이는 저 눈동자를 저렇게나 시들게 만들다니. 시험이 이렇게 무섭다. 큰 두 눈을 부릅뜨고 온몸으로 나뭇잎을 관찰하고 있는 너는 은사시나무. 햇살이 좋은 날 바람에 흔들리는 은사시나무는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 반짝거린다. 뒷면에 흰 털을 가진 은사시나무는 잎 아래 납작한 잎자루를 가져서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 앞뒤로 크게 팔랑거리며 햇살을 반사한다. 마치 아이가 깔깔 웃듯이, 네가 온몸으로 웃는 것처럼 팔랑거린다. 항상 졸린 듯 흐느적거리며 걷는 은사시나무는 누군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해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낸다. 그러고 나면 조만간 큰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네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는 듯 온몸을 흔들며 웃는 모습에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금세 따라 웃는다. 흘리듯 중얼거린 말 한마디에도 열 마디의 답을 주는 은사시나무, 작은 농담에도 온몸으로 웃어주는 은사시나무.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나무가 은사시나무일까. 네가 서 있는 자리에 반짝이가 포함된 색연필을 문지른다. 네 눈동자만큼은 아니지만 반짝이는 나뭇잎이 그려진다.

'언니, 공부 많이 했어?' 은별이 막 과방 문을 열고 들어온다. 포근한 재질에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진 외투가 꼭 은별이 같다고 생각했다. 은별이에게 아까 받은 다정큼나무 잎을 내민다. '이거 무슨 나무게.' 은별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금방 답을 맞힌다.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나무라며 너스레를 떤다. 너는 이 나무를 왜 좋아할까. '너는 왜 다정큼나무가 좋아?' 은별에게 나뭇잎을 건네며 물었다. '이름이 마음에 들어. 이름이 다정하잖아.' 작고 예쁜 책에 다정큼나무 잎을 끼워 넣는 너를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네가 더 다정해. 은별은 연약한 표정을 잘 짓는 아이다. 나의 슬픔도 너의 슬픔도 모두 나의 일이며 그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듯 금세 연약해지고 그만큼 따뜻해져서 순식간에 주변을 데운다. 매주 들이닥치는 시험 앞에 '이번 시험은 글렀어. 나는 버리고 가.' 하고 책상에 벌렁 드러누우면 옆에 철푸덕 같이 누워 '그럼 나도 같이 여기 있을게.' 하고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함께 뒹굴거려주는 다정큼나무. 네 앞에서는 행복도 슬픔도 나의 가장 약한 부분도 숨길 필요가 없었던 다정한 다정큼나무. 다시 작은 다정큼나무 잎을 그렸다.

햇살이 좋은 날 바람에 흔들리는
은사시나무는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 반짝거린다.
뒷면에 흰 털을 가진 은사시나무는
잎 아래 납작한 잎자루를 가져서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 앞뒤로
크게 팔랑거리며 햇살을 반사한다.
마치 아이가 깔깔 웃듯이,
네가 온몸으로 웃는 것처럼
팔랑거린다.

힘겨운 태백산 등산이 끝나고 우리는 해가 지기 직전에 드디어 아스팔트를 밟았다. 사위로 캄캄한 어둠이 덮여오고 있었다. 춥고 지친 우리는 차가운 도로를 서로에게 기대어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다. 그때 어둠 속에서 피어난 민들레처럼 노란빛을 뿜어내는 카페가 어두운 길 한가운데에서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우르르 몸을 데우려 들어갔다. 그날 노란색 연기가 피어오르던 카페에서 은별은 물었다. '언니의 최애나무는 뭐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아주 잘 아는 듯한 사람이 있다. 뭘 먹고 싶냐 물으면 주저 없이 말하고 너와 뭘 함께 하고 싶다고 선뜻 문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나였다. 네가 느티나무가 좋다고 하면 그 잎을 따다가 매년 책갈피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가장 예쁜 느티나무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기꺼이 함께할 수도 있지만 무슨 나무를 제일 좋아하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나는 몰랐다. '글쎄….' 따뜻하고 안온한 카페에서 수많은 나무의 이름을 외우며 나는 그중 하나를 고르는 일에 끝내 실패했다.



이어서 모여있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의 나뭇잎을 하나하나 그렸다. 나뭇잎을 빙 둘러서 나무의 학명도 썼다. 이것만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 나뭇잎 모양이 꼭 그 사람 같다고 생각했다. 나뭇잎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꼭 숲 같다고도 생각했다. 신갈나무가 물었다. '너 다 외웠어? 이거 뭐야.' 눈앞에 나뭇잎을 팔랑인다. 우연찮게 신갈나무였다. '오빠 나무.' 신갈나무는 대체 뭔 소리냐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 그는 웃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쟤 또 공부 안 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책상 위에 나뭇잎이 어지럽게 돌아다닌다. 그 모습이 퍽 아름다워 보였다. 아니 그보다 그 잎을 들고 서로 맞춰보라며 깔깔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다시 종이를 들었다. 그린 나뭇잎들을 빙 둘러 삼각형을 그렸다.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들로 숲을 만들 수도 있겠다. 지금 나는 그 숲 한가운데에 있나. 그 삼각형 위에 내 이름을 썼다. 나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사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이 숲을 제일 좋아해야겠다. 네가 모여 만든 숲을, 우리가 만든 숲을 사랑해야겠다. 나는 나뭇잎으로 남은 공간을 마저 채우고 잎을 하나씩 칠해나갔다. 꽤 마음에 드는 그림이 될 것 같았다.

은별이 옆에 와 물었다. '뭐 그리는 거야?' 나는 종이를 들어 서 있는 사람들과 숲 그림을 겹쳐보았다. '은별아, 이 순간이 또 올까?' 은별은 꽤나 진중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대로라면?' 나는 갸웃하면서 다시 은별을 바라보았다. '이대로라면 나는 분명 재수강이야… 언니.' 우리는 서로를 보며 크게 웃었다. 시험 10분 전이었다.

2026년 제9회 상록문학상 공모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동창회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9회 상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공모내용 창작 시, 창작 수필(작품 수 제한 없음)
(분량 A4지 12pt 2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하)

참가대상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대학원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
*단, 기존 1~8회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는 제외

출품소재 나에게 소중한 것

출품기한 10월 12일
(작품 제출 시 성명, 소속, 휴대폰 연락처 기재 必)

작품제출 snunong7@naver.com
*메일 제목을 "상록문학상 공모–홍길동"으로 명시 요망

자세한 시상 내용은 QR로 확인

2026년 91학번 주관 '상록의 날'



91학번 단체

2026년 5월 9일 상록의 날 행사가 모교 201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식순 동창회장, 강병철 모교 학장, 정창주 명예교수,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동문과 학생회장 등 학생회 임원, 그리고 동문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여하였다. 10시부터 시작한 총회에서는 김진모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동창회 예결산 등 주요 사안들이 보고되고 심의 가결되었으며,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 '명예의 전당' 헌정자 인증서 수여와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2인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정자로 고 김상진(축산68) 동문이 선정되었으며,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상자는 김홍기(농학61) 동문과 이종기(농화학75) 동문이 선정되었다. 고 김상진 동문을 대신하여 명예의 전당 헌정 인증서를 받은 김상진 기념사업회 회장 정근우(농화학84) 동문은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한 김상진 동문의 희생이 동문 전체의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고 하였다.

김홍기 동문은 수상 소감으로 졸업 후 타 산업(플라스틱 도관)에 진출하여 오랜 세월 매진하여 그 분야의 대표 기업이 되게끔 한 일련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종기 동문 역시 졸업 후 당시로는 수입에만 의존했던 서양 리큐어(liqueur)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로 국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급 제품이 청와대 만찬주로 채택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하며, 이러한 노력이 상록인 대상 수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크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김홍기 동문과 이종기 동문은 수상한 상금을 즉시 다시 동창회와 재단에 기탁하며, 상금이 좋은 일에 쓰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동창회와 재단에 여러 면에서 기여한 손해일(잠사67), 신희순(잠사69), 조계현(농화학76), 황계순(농가정79), 강영애(농가정82), 여기영(조경90) 동문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시상식에 이어 91학번 동문들을 대표하여 강성 주관 학번 전체 대표는 모교와 동창회, 그리고 학생회에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기금을 전달하였다. 특히 모교 학장에게 전달한 기금은 학교버스를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1부 총회를 마친 후, 2부 '스승님과 선배님 모시는 행사'는 91학번 학내 대표 허진회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

으며, 주관 학번 전체 대표인 강성(농토목91) 동문의 인사말에 이어, 91학번 권주용이 지휘하는 서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구성한 피아노 트리오의 훌륭한 연주가 있었다. 공연을 마친 후 91학번들이 객석의 스승님들께 감사의 선물과 카네이션을 전달한 뒤 무대로 올라 도열하고 〈스승의 은혜〉와 〈상록의 아들〉을 합창하였다. 이에 대한 답사로 명예교수를 대표한 권순국(농공60) 명예교수와 선배를 대표한 허신행(농경제62) 전 농림부 장관이 91학번을 치하하는 격려사를 전하였다.

스승과 선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마친 후, 91학번 전체 기념사진과 학과별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야외에 마련된 오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푸른 5월의 녹음과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서 가벼운 술과 통돼지 바비큐를 즐기며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오랜만에 선후배와 동기 사이의 격의 없는 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을 마친 후 이어진 3부 여흥의 시간에서는 이기훈 모교 교수의 사회로 골드바를 경품으로 한 퀴즈 잔치가 열렸으며, 골드바의 주인은 이건우(응생화23) 학생회장에게 돌아갔다. 3부 퀴즈 게임과 동시에 야외에서는 달고나 게임이 별도로 열려 성공한 동문에게는 별도의 경품이 주어졌다. 퀴즈 게임과 달고나 게임 모두 참석 기념품이 제공되어 동문들은 양손 가득 기념품을 들고 귀가하였다. 행사를 마친 주관 학번 대표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록의 날 행사를 자축하며 공학관 BBQ에서 뒤풀이를 갖고, 행사 준비에 매진했던 3개월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2026년 상록의 날 행사를 준비하며 애쓴 91학번 동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처음 주관 학번 회의를 시작할 때 부정적인 기류도 없지 않았으나, 상록이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며 주관 학번의 의무를 함께 나눈 91학번 모두에게 칭찬과 함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동문 모두가 기원하는 바이다.

"시련을 넘어 상록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십시오"



박식순 동창회장

동창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12대 동창회장 박식순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매년 '상록의 날'을 통해 은사님과 선후배님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것은 우리 동창회만이 가진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정성과 열정을 다해 준비해 준 입학 35주년, 91학번 동문 여러분께 각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록의 정을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문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안한 국제 정세와 경제적 파고라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온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가 단순한 친목을 넘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심리적 요새'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배의 경륜과 후배의 패기가 하나로 뭉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의 날을 맞아 드리는 혁신과 도약의 인사"



강병철 모교 학장

모교 학장 축사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록의 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91학번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헌신해 오신 고(故) 김상진 열사의 헌정식과 '상록대상' 수상자분들의 영예로운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식순 동창회장님과 모든 동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재 우리 농생대는 멈추지 않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시스템과학과 등 첨단 분야 학과 정원 증원과 더불어, 오랜 숙원이었던 관악수목원의 서울대 자산 등기라는 큰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태화산, 칠보산 학술림 확보 등 연구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체 수익 모델'을 구축해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동창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세대학교의 사례처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시급한 과제인 '노후 학생 버스 교체'를 위해 동문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의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한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동창회는 같은 꿈을 꾸었던 이들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인생의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문 여러분이 따뜻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대의 양심, 김상진의 정신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며"



정근우 김상진기념사업회 회장

명예의 전당 헌정자 소감

안녕하십니까. 김상진기념사업회 회장 정근우입니다.

오늘 우리 농생대 '명예의 전당'에 김상진 선배님의 영정을 올리게 되어 감격스럽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1975년 4월, 스물여섯 청춘을 바쳐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자 했던 선배님의 뜻을 50년이 지나 모교가 인정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80년대 '금기'의 이름이었던 선배님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38년간 헌신해 온 선배님들과 기념사업회 회원들의 노력은, 단순히 한 개인을 기리는 것을 넘어 대학의 본질을 되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해 '김상진 홀'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농생대 동문들이 선배님의 정신을 진정한 지성의 좌표로 삼겠다는 다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산업화의 공과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김상진 선배님의 정신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왜 정의를 고민해야 하는지 답해줍니다. 앞으로도 선배님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후배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허락해 주신 동창회와 관계자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58년의 외길, 상록의 정신으로 일군 보람을 기리며"



김홍기(농학61)

김홍기 동문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농학과 졸업생 김홍기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박식순 동창회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8년 전 대학 시절,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셨던 은사님의 가르침은 제 평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황무지를 개척하며 농업의 가치를 지켜온 시간은 제게 고난이 아닌, 상록인으로서 누린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지극정성으로 가꾸어 결실을 맺는 '상록의 정신'은 우리 농생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이제는 미래 첨단 농업을 이끌어갈 후배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저 또한 선배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가치를 사랑하는 '참농업인'으로서, 모교와 동문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영광을 모교와 동문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농산물로 빚는 세계적 명주, 우리 농업의 신기원을 열겠습니다"



이종기(농화학75)

이종기 동문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농생대 동문 여러분.

먼저, 저에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상록인 대상을 주신 모교와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대 농대'라는 자부심을 안고 45년을 걸어온 길에 주신 큰 격려라 생각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27년간 세계적인 주류 현장을 누비며, 지역 농산물이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때 얻은 깨달음은 단순했습

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농산물로 세계인이 감탄할 명주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문경과 광양 등 전국 농촌을 발로 뛰며 오미자, 사과, 쌀 등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가 빚은 술들이 정상회담 만찬주로 채택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좋은 술은 한 나라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국격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농업이 양조 산업이라는 날개를 달고, 세계가 주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 남은 열정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상은 대한민국 농업의 신기원을 열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동의 시대를 함께 걸어온 우리의 연대, 인생 마라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강성(농토목91)

주관학번 전체 대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상록의 날' 주관 기수인 91학번 대표, 농토목학과 강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은사님들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로 입학 35주년을 맞이한 저희 91학번이 정성을 다해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최루탄 가득했던 대학 시절,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격동의 현대사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통과해 왔습니다. 때로는 꿈이 꺾이는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 농생대인들은 특유의 끈끈함으로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마라톤에 비유하면 30km 지점을 지나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 우리를 지탱했던 동료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을 함께 헤쳐 나갈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91학번은 선배님들의 지혜를 배우고, 후배들에게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는 가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서로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는 상록의 연대가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그 시절의 뜨거웠던 열정과 추억을 마음껏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을 넘어 이어진 상록의 연대, 사회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권순국(농공60) 명예교수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1960년 농공학과에 입학하여 여러분과 함께 모교의 역사를 쌓아온 선배이자, 지난 2007년 퇴임한 농공학과 교수 권순국입니다.

오늘 뜻깊은 '스승 및 선배 모시는 날'을 맞아, 제자들과 동문 여러분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특히 행사를 주관하며 정성껏 자리를 마련해 준 입학 35주년의 91학번 동문 여러분께 스승으로서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35년 전, 푸른 열정을 품고 교정을 누비던 제자들이 어느덧 우리 사회의 든든한 중추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 농생대인 특유의 끈기와 상록의 정신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의연하게 살아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오늘의 이 만남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고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 리더입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 등불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 그 중심에는 농생대인의 상록정신이 있습니다”



허신행(농경제62)
전 농림부 장관

격려사

존경하는 은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농생대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101세의 연세에도 정정하신 모습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은사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록의 날’ 행사를 열정적으로 주관해 주신 91학번 강성 회장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지금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기존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갈구하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저력입니다. 우리 민족은 인류 문명의 시원을 이끌어온 위대한 역사와 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이 세상을 논하지만, 흙을 만지고 생명을 키우는 농생대인만이 가진 ‘상록의 정신’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구할 가장 강력한 해답입니다. 우리 농생대인들은 묵묵히 헌신하며 인류를 위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동문 여러분, 이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농생대가 배출한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울대 총장이 배출될 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농생대인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보듬고 이끌어갈 위대한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상록의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가올 새 시대를 향해, 우리 농생대가 그 중심이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상록의 날 91학번 학과별 행사 찬조금

학과/전공		찬조금(원)	학과/전공		찬조금(원)	학과/전공		찬조금(원)
1	농학	4,300,000	7	농경제	5,000,000	13	원예	4,000,000
2	임학	650,000	8	농생물	6,400,209	14	식품공학	5,600,000
3	축산	3,500,000	9	천연섬유	3,000,000	15	임산가공	4,000,000
4	농토목	5,000,000	10	농가정	3,050,000	16	조경	2,500,000
5	농기계	5,000,000	11	농교육	3,200,000	합계		63,500,209
6	농화학	5,300,000	12	농촌사회교육	3,000,000			

2026년 상록의 날 협찬품 내역

이름	학과/학번	소속 또는 후원사	찬조물품
박식순	농교육77	제12대 동창회장	1돈 골드바
서병륜	농공69	명예회장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0장
강병철	원예86	명예회장(농생대학장)	계란 100박스, 된장 30박스
심재중	식공91	한국야쿠르트	Bioliv/100억유산균, 30캡슐*100박스
류진국	식공85	경희희망한의원	경옥고 30세트
고석진	농토목91	푸르메다	작두콩차, 사탕 400세트
최건업	농기계85	(주)상락아정문화유산	음료수, 생수, 캔맥주 총 300개
윤석용	농학74	농업법인 새들만	5kg 선물용 쌀 300박스
정현아	농가정82	만포면옥	5만 원 식사권 10매
조재구	임학83	대강양조장	소백산막걸리 100병
박용민	식공91	빈스랩(주)	콜드브루 커피 선물세트 40세트
문성훈	식공86	농업법인 오미나라	스파클링와인 6병
염종경	천연섬유91	더마바이오텍(주)	시카리닉 3종 세트 5개
이혜숙	식공85	동창회 총무이사	골프 얼음주머니 10개

상록의 날 스케치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❿



⓫


⓬


⓭


⓮

❶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정자 故 김상진(축산68) ❷ 김홍기 상록인대상 수상자 가족과 함께 ❸ 방명록 서명은 필수 ❹ 올핸 우리가 주관 학번 ❺ 우리도 주관학번 대표 ❻ 총회 사회 김진모 수석부회장 ❼ 국기에 대한 맹세 ❽ 작고 동문에 대한 묵념 ❾ 동창회장 인사말 ❿ 학장 축사 ⓫ 동창회 회무 보고 ⓬ 동창회 감사 보고 ⓭ 포상위원회 선정보고 ⓮ 김상진기념사업회 회장 소감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❿



⓫

❶ 이종기 상록인 대상 수상자 가족과 함께 ❷ 감사패 수상자들 ❸ 김홍기 상록인대상 수상자 소감 ❹ 이종기 상록인대상 수상 소감 ❺ 수상자 및 헌정자 단체 ❻ 91학번 동창회 후원금 기증 ❼ 91학번 모교 발전기금 기증 ❽ 91학번 학생회 후원금 기증 ❾ 91학번 대표 인사말 ❿ 피아노3중주 축하공연 ⓫ 2부 사회 91학번 허진회 교수



























❶ 91학번 대표들, 수고많았어요. ❷ 은사님 소개 ❸ 91학번 입장 ❹ 은사님 격려사 권순국 명예교수 ❺ 허신행 전 농림부장관 격려사 ❻ 91학번 스승의 은혜 합창 ❼ 야외 오찬 ❽ 야외 오찬 ❾ 바베큐도 먹고 ❿ 스승님 감사해요. ⓫ 같은 학과끼리 오순도순 ⓬ 같은 학번끼리 ⓭ 동기끼리 찰칵, 축하해
















❶ 축제의 꽃, 두레 ❷ 3부 명사회 이기훈 교수 ❸ 스승과 제자, 감사합니다. ❹ 패자부활전, 이 시간만 기다렸엉. ❺ 드디어 골드바를 향해 ❻ 올해의 골드바는 학생회장이. ❼ OX퀴즈, 축하드려요. ❽ 자신있게 선택, 맞추셨나요? ❾ 두구두구두구, 마지막 승부 ❿ 골드바를 놓쳐도 달고나가 기다리고 있네. ⓫ 조심조심조심 ⓬ 달고나 기념품도 챙기고 ⓭ 수고한 칼시안 봉사대

삼(蔘)을 속속들이 꿰뚫은 삼의 대가(大家)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
양태진(원예85)



2026 서울K-바이오 위크 기조 연설 중(사진: 서울신문사)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은 평창군 대화면의 거문산과 금당산 자락에 위치하며 84만 평 캠퍼스의 관리와 연구, 행정, 교육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소속의 24명 교수님들이 축산, 디자인동물, 종자, 식품, 지역과 국제협력 등 그린바이오 선도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대화된 연구시설과 농장, 목장, 대동물병원, 대동물임상연수원, 넓은 산학협력시설 등 그린바이오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우리 연구원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0명 정도의 정주 인원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방문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휴부지를 생태힐링공원으로 개발 중이며 교육연수시설 확충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여 휴식과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약용작물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 연구가 중요합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더불어 우리나라 고유 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농장 실습 중

분야가 되었습니다. 저는 농생대 작물생명과학전공(옛 농학과)에서 특용작물의 유전체 육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명의 석사, 박사과정 학생, 연구교수와 함께 약용작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식물연구실 담당 교수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기능성 식물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약용식물의 왕인 인삼에 대한 연구를 20년째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인삼의 유전체 해독과 활용 기술에 대해 전 세계 최초이자 가장 연구를 많이 한 학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4년을 키워야 종자를 맺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매진하는 우리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식방풍(방풍나물, 갯기름나물)을 전국에서 수집하여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여 채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백수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초는 아직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유전체 연구를 통해 연구의 효율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되어 식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의 진위 판별을 위한 유전자바코딩 기술 개발 등 실용적인 기술개발에도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20세기는 석유경제 시대, 21세기는 바이오경제 시대일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최근 호르무즈해협 봉쇄 때문에 석유가 연료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산업은 석유라는 거대한 자원을 활용하면서 파생된 산업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석유도 몇백만 년 전 식물 혹은 미세조류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인 만큼, 현재 살아있는 식물과 미생물 등은 재생산이 가능한 지속적인 자원이 될 수 있고, 모든 산업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석유를 대체하여 지속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바이오자원을 이용한 경제시대가 향후 펼쳐질 바이오경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오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가 되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산업을 만드는 일체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바이오파운드리와 지속가능한 산업 소재 분야에 중심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종자, 동물의약품, 천연물, 식품, 미생물 등 5대 분야에 집중하고 있지만, 생물자원에서 파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모두 그린바이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시대에 유전체 육종연구의 변화를 예상하신다면?

최근 모든 분야에서 AI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 학생들과 과학자들의 연구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지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유전체 정보는 육종



연구실 20주년 기념 단체 사진

연구에 활용되어 육종의 속도를 빠르게 할 뿐 아니라 예측하고 디자인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단계에는 원리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AI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기본적인 원리와 공부를 충실히 하고 응용 단계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삼과 산삼 관련 연구의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은 약초의 왕이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종주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 산업은 중국, 캐나다 등에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려인삼을 중국인삼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삼은 4년을 키워야 40개 정도의 종자를 맺어 유전육종 유전체 연구에는 정말 어려운 식물이어서 인삼의 유전체 연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바보짓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인삼 유전체 연구를 하게 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전 세계에서 인삼 유전체 최초 해독, 범유전체 해독, 유전자칩 개발 및 분자육종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성과를 완성하였습니다. 인삼 연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에는 대통령 근정포장도 받을 수 있어서 나름 뿌듯합니다. 더불어 인삼 연구를 하며 울고 웃었던 우리 연구실 학생과 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이용하여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한창 판매고를 올리던 회사가 소비자원이 제시한 '가짜백수오'라는 보도로 하루아침에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5월에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8시 뉴스를 보며 가짜백수오 사건을 일으킨 '내추럴앤도텍'이라는 회사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5월 내내 매일 보도되는 가짜백수오 사건의 요지는 '우리나라 고유식물인 백수오라는 약제가 여성 갱년기에 좋아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재료 단가를 줄이려고 중국에서 수입한 비슷한 약제(중국에서 백수오로 사용하는 이엽우피소라는 식물)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국소비자원에서 고발하였다.'였습니다. 그 내용에 덧붙여 이엽우피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여 사용하면 안 되는 식물이라는 내용인데 '그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파렴치한 악행을 저지른 기업이다.'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해당 회사 제품에 중국산 시료가 얼마나 섞였는지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았고, '중국시료는 거의 혼입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그 회사는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5월 한 달 동안 회사는 상상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고, 2025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야 수출을 확대하며 재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연구실에서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그



가족과 함께

리고 근연 야생식물인 박주가리에 대한 유전체 연구와 유전 육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당시에 발생한 유전자분석법의 위양성 분석이 오류임을 밝히고 가짜 백수오 사건의 무고를 증명해 줄 수 있었고 또한 대규모 유전체 해독을 통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역시 여러 차례 협박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저의 노력이 백수오 산업과 백수오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은 매우 큽니다.

향후 더 연구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삼과 백수오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내용이므로 보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로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더불어 식방풍에 대한 유전체와 유전육종 및 품종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맛있는 식방풍이 가정에서 채소 작물로 애용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식방풍 잎에는 전립선과 근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운 분들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은사님이신 모교의 박효근 교수님은 늘 '불광불급'이라는 말씀을 제 뇌리에 박아 넣으셨습니다. 미쳐서 좋아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우리 교수님처럼 미쳐서 열심히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제가 하는 식물에 대한 연구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의 헌신적인 열정은 늘 제 마음속의 채찍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능성식물 연구실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실을 시작할 때 약초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는데 같이 부대끼며 나름 선도적인 연구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해준 우리 연구실 23명의 박사와 40명의 석사, 10명의 박사연구원 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0년 한결같이 우리 연구실의 대소사와 연구의 사소한 내용까지 모두 잘 챙겨주고 정비해준 박지영 연구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교수의 자녀는 한편으로 축복의 단어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큰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가진 것 없이 출발하여 늘 부족함 투성이였지만 잘 성장해준 현모, 현지, 현아에게 고맙고 가족의 울타리를 잘 지켜준 아내 윤정 씨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7남매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사랑과 이해로 엮인 3명의 형님과 3명의 누님에게 감사하고 중학교 때부터 돌봐주고 꾸짖어주신 양태용 형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약력

2025. 7.~	한국약용작물학회 회장
2025. 1.~	한국종자연구회 수석부회장
2024. 1.~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원장
2021~2023	서울대 농생대 연구부학장
2021	한국 육종학회 회장
2020~2023	대검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2020~2021	서울대 농생대 농림생물자원학부장
2020~	BK21 농림생물자원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

주요 수상력

2020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2019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대통령 근정포장
2019	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2018	고려인삼학회 학술상
2018	한국육종학회 우수논문상
2017	상록연구대상(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6	화농상(화농재단법인)
2013	최다인용논문상(한국유전체회)

영광의 얼굴

2026년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자

공적서	
 김상진(金相眞) (축산68)	**활동 및 공적사항** 故김상진은 서울대 농과대학 축산학과 재학 중 민중적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학문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1975년 4월 11일 자신의 생명을 바쳐 '민주주의 가치'를 지킨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과 공공성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민주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 공로자로 공식 인정되었고, 서울대학교 총장은 명예졸업장을, 대통령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하였다. 故김상진은 산업화 시대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그가 1975년 4월 11일 수원 농대 캠퍼스에서 읽은 '양심선언문'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성을 고발함과 아울러 당시 1970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양심적 지식인 사회에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그의 행동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 억압된 사회의 진실을 드러내는 역사적 운동으로 전환되어 훗날 대한민국이 경제성장 산업화와 인권존중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것이 故김상진 열사의 위대한 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의 '양심선언문'과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장'에는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드러나 있으며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학생운동 최고의 선언문으로 회자되며 한국 민주화운동사에 불후의 명문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8년 농과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김상진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김상진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 사업이 전개되어 『긴겨울 얼음 뚫고』라는 김상진 평전이 발간되었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2002년 서울대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았다. 2021년 6월 당시 대통령에 의해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정에는 열사의 뜻을 새긴 '김상진 기념비'가 서 있으며, 옛 수원 교정의 당시 의거했던 자리에는 기념 표석이 설치되고 50주년을 맞이한 2025년 '김상진 민주광장'이 조성되었다.
학력 및 생애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입학(1968. 3. 2.) · 휴학 후 군대 입대(1971. 12.) · 군대 제대 후 가을학기 복학(1974. 9.) · 농대 수원캠퍼스에서 양심선언문 낭독 후 할복자결(1975. 4. 11.) · 오전 08시 55분 서울대병원 이송 중 사망(1975. 4. 12.)
수상력	· 제3회 사월혁명상 수상(1992. 4. 17.) ·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정(2001. 2. 26.) · 명예졸업장 수여(2002. 2. 26.) ·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2021. 6. 10.)

2026년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상자

공적서	
 김홍기(金弘箕) (농학61)	김홍기 동문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30여 년간 건축자재 및 산업용 관(Pipe) 분야의 기술 자립을 이끌며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헌신해 왔다. 특히 PVC 자재 국산화와 고속 압출기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500% 이상 향상시켰으며, 일본 기업과의 기술 소송에서 승소하여 국내 기술 주권을 수호하는 등 국가 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52종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상수관을 개발하여 공공 인프라 품질 향상에 기여했고, 중동 및 동남아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대한민국 기술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했다. 사람 중심의 경영 실천에도 앞장섰다. 2011년부터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전체 직원의 60% 이상이 장기 근속하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청년 인재 27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생산 설비 효율화를 통해 연간 255만 kWh의 전력 사용량과 1,200톤(120만 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며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의 자원봉사와 정기적인 장학금 후원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나눔 경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김홍기 동문은 혁신적인 리더십과 도덕적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
학력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1968. 2.)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1999. 2.)
경력	· 한국 PVC관 KS표시 허가업체 협의회장(1990. 3.~1992.10.) ·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 초대이사장(1995. 5.~1996. 5.) · 한국PVC하수관사업협동조합 이사장(2010. 3.~2012. 6.) ·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2006. 3.~2025년 현재 재임)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감사(2024. 2.~2025년 현재 재임)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설립 30주년 기념 사업 위원장(2025. 3.) · 신우산업(주)대표(1968~현재)
수상력	· 고려대학교 총장상(1968. 2.) · 공업표준화부문 대통령 표창 / 공산품 품질관리향상 행사(1990. 11. 14.) · 특허기술상 수상 / 발명의 날 행사(1993. 2. 25.) · 환경부 장관 표창 / 세계 물의 날 행사(2012. 11. 1.) · 산업자원부 장관 / 49회 상공의 날 행사(2022. 4. 1.) · 우수장수기업수상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2022. 12. 23.) · 국무총리상 수상 / 중소벤처기업부 (2023. 5. 16.)

2026년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상자

공적서



이종기(李鍾玘)
(농화학75)

이종기 동문은 대한민국 최초의 마스터블렌더로서 40여 년간 양조 외길을 걸어온 주류 전문가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자로서 대한민국 술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평생을 헌신해 왔다.

그는 '패스포트', '윈저', '골든블루' 등 국내 주류 시장을 선도하는 위스키를 개발하여 대한민국 주류 제조 기술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하며 양조 전문 서적을 집필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와 후학 양성을 통해 학문적 토대를 다졌다.

특히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세계적 명주 개발을 목표로 농업회사법인 ㈜제이엘과 한국바이오양조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그의 가장 큰 공적이다.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와 사과를 주원료로 세계 최초의 오미자 와인과 증류주를 제조했으며, 연간 500톤 이상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을 실천하는 진정한 농민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탄생한 '오미로제', '고운달', '문경바람' 등의 제품은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석권했다. 또한, 다수의 국빈 행사 공식 만찬주로 채택되어 대한민국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 품격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술 문화 박물관을 운영하며 올바르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한국증류주협회 회장으로서 업계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전통주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탁월한 전문성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1차 산업인 농업을 고부가가치 양조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이종기 동문은, 혁신적 기업인이자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리더이다.

학력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 졸업(1981. 2.)
· Heriot-Watt Univ.(Scotland) Brewing & Distilling 석사 졸업(1991. 6.)
· 경희대 한방 생명공학과 박사과정 수료(2009. 8.)

경력

· 씨그램 코리아 상무(1998. 5.~2002. 11.)
· 디아지오 코리아 부사장(2003. 1.~2006. 12.)
· 세계술 문화 박물관 리쿼리움 관장(2005. 5.~2020. 12.)
· 한경대학교 겸임교수(2010. 3.~2014. 2.)
· 영남대학교 식품가공학과 교수(2014. 9.~2015. 8.)
· 한국 바이오 양조 연구소 소장(2008. 9.~현재)
· 농업회사법인(주) 제이엘 대표이사(2008. 9.~현재)

수상력

· 술을 알면 세상이 즐겁다(한송출판사)(1997)
· 관례와 행음주례(리쿼리움)(2008)
· 이종기 교수의 술 이야기(다할미디어)(2010)
·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2016)
· 오미로제 결(結) 한미정상회담 공식 만찬 건배주로 선정(2022)
· 오미로제 연(緣) 대한민국 주류대상 수상(2022)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2023)

90년 항아리가 담아내는 깊은 맛, 한국 전통 소백산 막걸리

대강양조장 대표
조재구(임학83)



좌측 조재구 대표, 우측 대강양조장 체험센터

항상 상록의 날에 막걸리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강양조장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졸업 이후 전공과는 무관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었지만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상당 부분 모교의 영향력과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작지만 제 성의로 모교의 요청이 있으면 제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었을 뿐입니다. 상록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서울대 총동창회 홈커밍데이나 신년하례회, 정기총회에도 요청이 오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강양조장은 제 외증조부 때부터 4대째 이어 내려오는 100여 년의 세월을 가진 오래된 양조장으로서 시골의 작은 규모의 양조장이지만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우리의 전통주를 정성껏 빚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작은 양조장들이 거의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대님들의 훌륭한 양조 기술 덕분에 명맥을 유지하여 저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가업을 승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한 승계하신 후 운영에 변화가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제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제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현재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 역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장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업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만 해



대만예능프로그램 연예인들과 대한민국 전통주 소개 촬영장면

도 가업을 승계할 생각은 없어서 임학과를 전공하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식품공학이나 농화학을 전공했더라면 가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양조업에 참여한 후로 좀 더 시대에 맞게 규모를 확장하여 제천에 제2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일본, 호주 등으로 수출도 하였으며, 대기업인 CJ와 막걸리 공동사업, 현대카드와 보드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또한 대강양조장은 오랜 전통과 명성에 힘입어 2014년 농식품부 지정 '대한민국 찾아가는 양조장' 제1호로 선정되어 기존 양조장 자리에 전통주 체험관과 박물관을 개설하여 외국인 체험 전문 여행사 4곳과 계약하여 약 10여 개국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주 빚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학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도 우리술 빚기 체험 및 강의를 열심히 하여 우리술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즘 대세인 글로벌 케이푸드와 한류 문화의 영향 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양조 박물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0년 전부터 40년 전까지 선조들이 직접 사용하였던 양조 도구들도 구비되어 있어 체험관광객들에게는 양조 체험 이상의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덕분에 3년 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소공인'으로 지정도 되었습니다.

검은콩으로 막걸리 제조를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가업 정신인 '전통을 지키며 오늘에 맞게'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제품개발을 생각하던 중 검은콩의 기능성과 기호성을 이용한 검은콩 막걸리를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한 후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분자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에 이어 단양의 주요 특산물인 단양마늘을 이용한 흑마늘 막걸리를 출시하여 단양 관광상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90년 된 항아리 발효를 고집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전통 양조장들은 항아리를 사용하였는데 사용이 불편하고 파손되기 쉬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제법 규모 있는 양조장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항아리가 남았습니다. 여태껏 쓰고 있는 이유는 선조 때부터 사용하였던 아주 귀중한 도구이고 전통을 지키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흙으로 빚은 대형 술항아리는 자연 친화적이라 스테인레스 탱크보다 살아 있는 효모를 발효하는 데 최적이라 술맛의 깊이도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만찬주로도 지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청와대 만찬주로 공식 지정되어 200여 차례 청와대에 대한민국 대표 전통주로서 내외빈 손님들에게 그 맛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양조장이 유명세를 타 매출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막걸리를 사랑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항상 식사 때마다 우리 막걸리를 반주로 드셨고 청와대 내외빈 손님들에게 막걸리를 건배



좌에서부터, 생막걸리, 검은콩막걸리, 복분자막걸리, 오곡진상주, 소백산신선주, 청동동주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누가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소백산을 보게 하라'라는
모교의 관악산을 빗댄 말로
그들의 자부심을 세우고 꿈을
꼭 이루어 달라는 뜻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주로 대접하셨습니다.

양조업을 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그리고 술을 빚으실 때의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점을 꼽는다면 첫 번째로 건강입니다. 양조장 집안에서 자라나 좋은 효모 속에 살아가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90대이신 부모님 모두 아직도 운전도 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 동생도 내과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지만 제 부모님 연세에 그만큼 건강하신 분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술을 빚는 마음과 자세는 아버지에게 술을 배울 때 늘상 듣는 말씀이 '술을 만들 때는 너의 갓난 자식 다루듯 하라'는 것입니다. 효모는 아기와 같이 연약하고 표현을 할 수 없는 존재라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 똑같다고 하신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개발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시그니처 막걸리 외에 다양한 막걸리를 만들었고 전통약주인 신선주, 증류주인 소나무와 학, 예주 와인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술을 넘어 화장품업체와 협업하여 술지게미의 기능성을 이용한 '백당고'라는 막걸리 프리미엄 팩비누를 출시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개발로 막걸리의 활용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지역이다 보니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왕이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이 지역의 야학교사로서 과학 과목을 맡아 17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운동과 저의 작은 지식을 나누고 있어 이를테면 주경야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30여 년 전부터 단양 장학회 이사를 대를 이어 맡아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누가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소백산을 보게 하라'라는 모교의 관악산을 빗댄 말로 그들의 자부심을 세우고 꿈을 꼭 이루어 달라는 뜻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식물분류학과 수목학을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강의해 주셨던 이창복 교수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식물과 수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설픈 전문가 행세를 할 때마다 교수님의 재미있는 강의 내용을 자주 떠올리고 인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보명 교수님은 같은 양조장집 출신이어서인지 저를 특별히 아껴 주셨습니다. 대학졸업을 앞두고 교수님의 전공인 사방공학 분야의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셨지만, 그 뜻을 따르지 못해 지금도 죄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오 교수님은 제 지도교수로서 육종학과 조림학까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매년 임학동문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셔서 덕담도 해주시고 건배와 떡케이크 절단식도 같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랫동안 임학과 동문회장을 맡아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학과 동문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앞서 임학동문회장을 훌륭히 수행하신 정을수 선배님



가족사진, 두 딸과 부인

의 강권에 못 이기고 저 또한 우리 과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에서 맡아 3년을 이끌었지만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지방에서 사업과 기타 활동 등의 제약으로 더 많은 열정을 투자하지 못한 점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의 임학동문회는 서울대학교 학과동문회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 하계 졸업식을 동문회 사업 차원에서 별도로 치러주어 임학동문회 증서 수여와 동 대학원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수여도 하고 있고 연 2회 동문회보 발간, 재학생 대상 동문 초청 특강, 밀레니엄 동문회 후원, 골프모임, 등산모임 후원 및 매년 초 임학동문회 선후배님 교수, 학생과 함께하는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봄에는 홈커밍데이, 가을에는 등산대회 같은 야유회 등으로 모교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활성화된 동문회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동문회장은 아니지만 후선에서 애정을 가지고 응원하며 더욱 발전하는 동문회에 일조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아내와 우리의 자식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두 딸이 자랑스럽고 다 고마울 따름입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자기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며 겸손하고 소박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조재구 동문은 충북 충주에서 부친 조국환, 모친 이수영 슬하에 2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나 부인 박경선과의 사이에 조*린(사업), 조*진(검찰 공무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주요 약력

1. 한진중공업 근무
2. 제천탁주양조장 대표
3. 대강양조장 대표 (현)
4. 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5. 단양관광공사 이사
6. 단양장학회 이사

주요 수상 내역

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상(2016)
2. 대한민국 막걸리 식미테스트 대상(2014)
3. 대한민국 전통주 명인 선정(2020)
4. 대한민국 100년 기업 선정(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었던 씨앗 '에불'



강태선(농생물91)

1. 그린컵 운동

'딸그락딸그락.' 상록 교정을 떠올리면 비행기 이착륙 굉음보다 먼저 귓가에 닿는 소리가 있다. 학우들의 가방에 매달린 철제 머그잔이 걸음에 맞춰 흔들리던 소리다.

1997년 2학기 개강과 함께 농생대 환경동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불)'는 상록 학우들에게 일명 '그린컵'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 결실로 1997년 9월 22일, 교내 커피 자판기에서 종이컵이 자취를 감췄다. 학우들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가방에서 등산용 컵을 꺼내어 쓰고 직접 싱크대에서 씻어야 했다. 꽤 번거로운 일이었음에도 짜증을 내거나 항의하는 학생은 없었다. 이 작은 실천은 교내 종이 쓰레기를 10%가량 줄였고, 60만 원 상당의 종이컵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사실 에불은 이 '종이컵 추방 작전'을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먼저 농생대 학생회와 함께 학생들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종이컵 퇴출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이들은 곧장 학교 당국에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당국은 "취지는 좋으나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전체 학생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라"며 난감해 했다. 하지만 에불은 농생대 전체 학생 800여 명 중 506명으로부터 기어코 동의 서명을 받아냈다. 나아가 컵을 미처 가져오지 못한 학생이나 외부 방문객을 배려해 자판기 옆에 '공용 컵'을 배치했고, 씻은 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외선 살균 소독기까지 비치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내 동기 장정구가 주도했던 '그린컵 운동'은, 단순한 인식의 변화를 넘어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까지 이끈 서울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실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이듬해 이화여대 '가방에 컵 달기' 등으로 번졌다.

2. 에불의 탄생

에불은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인 1991년에 탄생했다. 당시 상록은 거대한 이념적 이정표가 희미해진 자리에 각자 다른 고민의 줄기를 뻗어 올리던 모색의 공간이었다. 공장에서 '학출 노동자'를 경험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온 83학번 김정수 학형 등 복학생들은 더 심각한 실존적 질문과 마주했다. "노동운동이 아니라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비단 선배들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 무거운 고민의 무게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후배 세대에게도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화두였다.

이들이 찾아낸 돌파구는
거대 변혁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파고드는 '부문운동'이었고 그 중심에
'환경'이 있었다.

이들이 찾아낸 돌파구는 거대 변혁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파고드는 '부문운동'이었고 그 중심에 '환경'이 있었다. 그러나 막 태동하는 환경운동의 방향성



"종이컵은 가라" '그린컵 운동'

■서울대 농생대생 '즐거운 고생'

경기 수원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들은 가방속에 등산용 철제 머그컵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

지난달 22일부터 학교내 커피 자판기에서 종이컵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커피를 마실 때 가방에서 등산용 컵을 꺼내 사용한 뒤 싱크대로 옮겨 씻는다. 불편하지만 짜증스러워하는 학생은 없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처한 고생이기 때문이다.

농생대 학생들이 「종이컵 추방 작전」에 본격 돌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농생대 학생회와 환경동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불)」가 학생들을 상대로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종이컵을 없애는데 찬성하는 학생이 압도적

'그린컵 운동' 보도 기사(『경향신문』, 1999. 10. 24.)

을 두고 모인 청년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파악하려는 시선부터, 생태주의적 가치관에 집중하려는 시선, 혹은 순수한 과학 기술적 대안을 찾으려는 시선까지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논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이자."

방향은 다를지언정 우리 사회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당위만큼은 확고했다. '에불'이라는 독특한 이름은 바로 이 치열한 불합치 속에서 이뤄낸 역설적인 합치의 산물이었다. "그럼에도('에') 불구하고('불') 모인 이들"이라는 가장 느슨하면서도 가장 단단한 연대의 선언이었던 셈이다.

이들이 골방에 모여 가장 먼저 수행한 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공부였다. 특히 당대 환경학의 기념비적인 번역서였던 『현대환경론』과 같은 굵직한 텍스트를 함께 읽어 내려간 과정은 감상적 자연보호 수준에 머물던 세간의 인식을 넘어, 환경 문제를 사회·경제적 구조와 연결 지어 거시적으로 통찰하려는 지적 투쟁이었다.

3. 대학생 환경동아리 협의회와 에불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던 무렵, 대학의 환경 관련 동아리들은 공해추방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대학 환경동아리 협의회(이하 대환협)'를 결성했다. 그 뜨거웠던 태동의 한가운데서 에불을 이끌고 있던 김정수 선배는 "우리는 왜 환경운동의 주체로 서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57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출사표를 작성했다. 나는 1991년 12월, 투박하게 링 제본된 이 글을 학습하고 동아리에 입회했다. 최근 '환경 아카이브 풀숲'에서 그 옛날 '아래아 한글 1.5 버전'으로 작성된 이 문서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 마치 30년 만에 그리던 옛 친구를 만난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빛바랜 모니터 화면 너머로 문건의 마지막 장, '(2) 우리의 각오'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80년대 변혁운동의 치열함과 90년대 환경운동의 새로운 비전이 용광로처럼 융합되어 있었다. 환경운동을 단순한 자연 보호가 아닌 '자연과 인간 해방의 그날'을 안아오기 위한 과제로 규정했던 선배의 투지가 투박한 글씨체 너머로 서슬 퍼렇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동시에 이 출사표는 다가올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학생운동의 낡은 틀을 넘어 '대중성·전문성·지역성'을 발현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특히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 빠르고 '전문성'을 가진 청년 학생이야말로 환경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에불은 1991년 대학 환경동아리 협의회의 일원으로 화성 주곡리 산업 폐기물처리장과 매향리 사격장 등 소음·오염 피해 지역을 답사하며 그 심각성을 학내에 알렸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수원 상록캠퍼스 자체가 거대한 전투기 소음 피해 지역이었다. 선배들은 소음측정기를 구해 교내 소음을 정밀 측정했고, 이 자료는 이듬해인 1992년 2학기 '농대 관악 이전 투쟁' 당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되었다.

당시 관악 이전 투쟁은 농생대 동아리들이 각자의 장기를 동원한 총력전이었다. 두레는 사물놀이로, 향연은 연극으로 뜻을 모았다. 특히 비행기 굉음에 놀라 실험하던 초자기구를 떨어뜨렸던 연구실 사고를 묘사한 차민호 선배의 실감 나는 연기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때 에불



버터플라이컵(출처: 『서울대저널』, 2021. 10. 27.)

은 소음 피해 입증 외에도 '농학 제자리 찾기 운동'에도 동참했다.

나는 당시 학생회 농학 제자리찾기 본부장 노광준 선배를 돕는 한편, 농생물학의 환경 보전 기능에 대해 얕게나마 공부했다. 관련하여 김황용 선배가 소개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읽으며, 생물학적 방제가 농약 남용의 부작용으로부터 생태계는 물론 농민도 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이후 1993년, 공해추방운동연합이 환경운동연합으로 개편되면서 처음으로 개최한 전문 강좌에 매주 참석했다.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황태연 박사의 『환경정치학과 현대 정치사상』 저자 직강이었다.

그의 강의 핵심은 꽤 명료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무한 성장을 위해 자연 파괴와 산업재해 등 피해를 외부로 떠넘겨 왔다는 것이다. 그는 공장 문을 닫는 식의 극단적 생태주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밖으로 버려지던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산업 시스템 안으로 가져와 스스로 책임지게 고치는 '내포적 재산업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맞닿아 있다는 통찰이었다. 공장 안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일과 공장 밖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결국 같은 문제이므로, 두 진영이 연대해야만 자본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나는 이해했다. 돌이켜보면 이때의 배움은 훗날 내가 환경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으로 관심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에불은 지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불의 혼은
캠퍼스에 살아 있었다.
관악캠퍼스 '버터플라이컵(Butterfly Cup)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4. 우리가 심었던 상록의 씨앗들

나는 줄곧 동창회 행사에 발길을 하지 않다가 2026년 상록의 날 준비 학번이 되고서야 찾았다. 30여 년 상록에서 그랬던 것처럼 5월 9일 행사의 길을 두레가 열었다. 두레가 명맥을 유지한 것도 기특한 일인데 기예가 더욱 출중해졌다. 농생대 후배들만이 아니라 타 단과대 학생도 있다니 놀랍고 부러운 일이다. 사실상 중앙동아리가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에불은 지금 없다. 농생대 이전에 즈음하여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불의 혼은 캠퍼스에 살아 있었다. 관악캠퍼스 '버터플라이컵(Butterfly Cup)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관악 중앙환경동아리 씨알은 2021년 10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뚜껑과 빨대가 필요 없는 친환경 종이컵인 버터플라이컵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씨알은 1993년 출범 이후 에불과 교류했기에 그린컵운동은 버터플라이컵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에불은 주요 OB들의 삶에서도 굳건히 살아 있다. 김정수 선배는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으로 오래 일하면서 연구소의 초석을 다졌고 지금은 환경건강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동기 장정구는 인천·황해지역 환경운동의 구심점이다.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오래 일했고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섬재단과 기후·생명정책연구원의 대표를 맡고 있다. 역시 에불 회장을 역임한 후배 김원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만든 (재)원진직업병관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소장이다. 모두 환경·노동의 약자 편에 서서 정의를 세우려고 온 삶을 바치고 있다. 에불의 정신을 잇고 있는 이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나의 상록 추억담을 맺는다.

신 간 소 개



『최윤재 삶의 흔적』
최윤재(축산73)
『최윤재 삶의 흔적』은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명예교수인 최윤재 교수가 자신의 삶과 인연을 되돌아보며 기록한 자서전이다. 지나온 경험과 가족·지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 삶의 의미와 세대에 전할 가치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징비 칼럼집』
이준원(농교육81)
『징비 칼럼집』은 ROTC 소대장 출신이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역임한 이준원(농교육81) 동문이 펴낸 칼럼집이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발표한 70여 편의 칼럼을 엮어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 현안을 되짚고, 미래를 위한 교훈과 대안을 제시한다.



『식물면역학』
황병국(농생물66)
『식물면역학』은 식물의 면역 원리와 병원균과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이다. 황병국 교수의 50여 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식물병리학의 기초부터 최신 생명공학 기술까지 폭넓게 담아 식물면역학 연구와 교육에 길잡이가 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간의 선물』
박노동(농화학70)
『시간의 선물』은 농화학자이자 시인인 박노동 동문이 펴낸 두 번째 산문집이다. 자연과 인문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선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았으며,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와 지혜를 섬세한 문장으로 전한다.



『성벽 너머, 수원의 숨은 표정들』
김훈동(농학63)
『성벽 너머, 수원의 숨은 표정들』은 김훈동 동문이 수원의 숨은 명소와 지역의 매력을 시와 사진으로 담아낸 시집이다. 저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이성락 작가의 스케치 삽화를 함께 수록해 작품의 감동을 더했다.



2027년 새해인사회 안내

2027년 77학번 주관의 새해인사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일시: 2027년 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2. 장소: 2026년 12월 동창회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동창회 이사회 및 77학번 주관의 새해인사회
4. 자세한 내용은 12월 1일 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5. 유의사항: 비용 상승으로 주관학번과 임원진 외 참석자들에게 소정의 참가비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예약하지 않을 시에는 좌석 부족으로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6. 모든 자세한 사항은 12월 중 동창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정식



2025년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자 정영선(농학60)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2025년 명예의 전당 헌정자로 선정된 정영선(농학60) 동문의 명예의 전당 헌정식이 있었다. 정영선 동문은 농학과 60학번으로 국내 조경가1호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호암미술관 전통정원 '희원(熙園)', 선유도공원, 경춘선 숲길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한국의 조경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간을 만들어왔는데 이러한 공로로 2023년 9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수여하는 제프리 젤리코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한국 조경가로서는 최초의 수상이다. 2024년 4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영선: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회고전이 열렸으며 정다운 감독이 연출한 정영선의 삶과 철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땅에 쓰는 시'가 2024년 4월 17일에 개봉되어 5월 6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2만 4천 명을 돌파했다.

정 영 선 (농학60)

수상경력		주요 전시 및 저서
· 1996	대통령포장(새국립중앙박물관신축현상설계)	· 『도시의 눈으로 건축을 보다』(서울특별시, 2017)
· 2004	한국건축가협회상(선유도공원)	· 아모레퍼시픽건축가전(2019)
· 2004	미국조경가협회(ASLA) Professional Award (선유도공원)	· 『한국 조경의 새로운 지평』(도서출판 한숲, 2021)
· 2023	세계조경가협회제프리젤리코상 (IFLA Sir Geoffrey Jellicoe Award)	· PICNIC(정원만들기)(2021) ·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국립현대미술관, 2024)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정자 고 김상진(축산68) *가족(형님)이 대신 헌정식 참여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정자로 선정된 고 김상진(축산68) 동문의 헌정식이 6월 20일 토요일 모교 201동 대강당과 명예의 전당에서 있었다. 고 김상진 동문은 서울대 농과대학 축산학과 재학 중 민중적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학문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1975년 4월 11일 본인의 생명을 바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적 전통과 공공성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공식 인정되었고, 서울대학교 총장은 명예졸업장을 대통령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하였다. 1975년 4월 11일 수원 농대 캠퍼스에서 읽은 '양심선언문'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성을 고발함과 아울러 당시 1970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양심적 지식인 사회에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행동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 억압된 사회의 진실을 드러내는 역사적 운동으로 전환되어 훗날 대한민국이 경제성장 산업화와 인권존중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 상 진(축산68)

학력 및 생애		수상력	
· 1968. 3. 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입학	· 1992. 4. 17.	제3회 사월혁명상 수상
· 1971. 12.	휴학 후 군대 입대	· 2001. 2. 26.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정
· 1974. 9.	군대 제대 후 가을학기 복학	· 2002. 2. 26.	명예졸업장 수여
· 1975. 4. 11.	농대 수원캠퍼스에서 양심선언문 낭독 후 할복자결	· 2021. 6. 10.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 1975. 4. 12.	오전 08시 55분 서울대병원 이송 중 사망		

명예의 전당 헌정자 소감문

우리 국토를 가꾸며 살아온 평생의 마음

정영선(농학60)



보청기 문제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서 실수가 있을까 걱정되지만,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 우리나라 국토를 가꾸고 그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원과 같습니다. 국토를 가꾸는 일을 형식적인 꽃밭 조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땅 자체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지켜나가는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는 들여다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과 냇물이 어우러진 이 땅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정원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터전을 후손들에게 소중히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 한 포기, 작은 자연의 소중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국토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시애틀 추장의 연설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땅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해 있다"는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만물은 가족과 같이 맺어져 있다는 이 지혜를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땅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눈으로 다듬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감동을 느끼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기쁩니다.



농가정과 동기 및 후배들의 축하를 받으며

명예의 전당 헌정자 소감문

그 정신을 이어가게 빛내주셔서 감사

김상근(故 김상진 가족 대표)



명예의 전당 헌정식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의 마음을 다할 길이 없습니다.

제 동생을 긴 세월이 흐르는데도 아직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이어가게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명예의 전당 헌액 축하, 김상진기념사업회 회원, 가족



좌로부터 정근우 김상진기념사업회 회장, 강병철 모교학장, 정영선 헌정자, 김상근(고 김상진 헌정자 형), 박식순 동창회장, 최윤재 포상위원장



헌정식 참여 단체사진



상록중창단 공연



농학도서관 리모델링 완공/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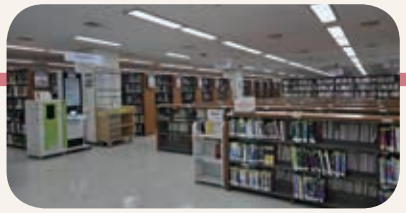
농학도서관은 2005년 수원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75-1동)로 이전하여 개관하였으며, 약 14만 권의 장서와 국내외 학술지, 전자저널 및 웹 데이터베이스 등 농업생명과학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관정도서관 신축과 지리적으로 편재된 위치와 시설 노후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감소되어 왔다. 따라서 모교는 이를 타개하고자 개인 학습과 공동 학습이 가능하도록 상록열람실을 리모델링하였고 보존도서 외 중복도서를 정리하여 마련한 공간에 도서관, 기록관과 박물관의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진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을 새로이 조성하여 4월 3일 개관하였다.

(위치: 모교 75-1동 두레미담 건물 1층/지층)

사진으로 보는 농학도서관, 라키비움

1) 농학도서관과 세미나 라운지


75-1동 1층 농학도서관 정문


농학도서관 1층 내부


농학도서관 1층 세미나라운지


농학도서관 B1층 내부②


농학도서관 B1층 내부①


농학도서관 B1층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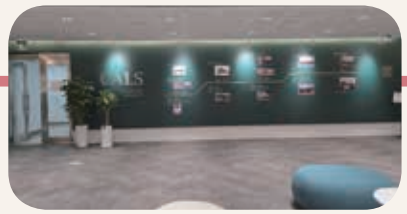
2) 상록열람실과 라키비움


상록라키비움 입구(농학도서관 앞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B1층으로 이동)


상록라키비움 내부①


상록라키비움 내부②


상록열람실 입구


상록라키비움 내부④


상록라키비움 내부③


상록열람실 내부①


상록열람실 내부②


그룹 스터디룸 내부

3) 야외에서 상록열람실 가는 길



농학도서관 정문에서 우측으로 이동



산책로 따라 이동



상록열람실 입구(S-CARD 태깅 필수)

모교 주요인사 흉상 이전 설치

모교는 6월 23일 모교의 설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주요 인사의 흉상이 각기 다른 장소(학과)에 분산 설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역사적 보존에 한계가 있어 이를 모교 200동 2층 중앙홀 로비에 함께 이전하여 대학의 역사, 문화 기념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구성원과 방문객에게 대학의 정체성과 학풍을 전달하는 상징 거점으로 만들었다. 주요 인사는 모교 초대 학장 조백현 박사, 이창구 교수, 김호식 박사, 류달영 교수이다.

조백현 초대 학장
초대 동창회장



이창구 박사
초기 농공학과 발전에 기여, 2대 동창회장



김호식 박사
초기 농화학과 발전에 기여



류달영 교수
농학발전에 기여



2026년 농생대 봄 체육대회, 농농유치원



사진: 학생 기자단

5월 5일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에서 '2026 농생대 체육대회(농체대)'가 열렸다. 올해 행사는 어린이날에 맞춰 '농농유치원'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2026학번 신입생은 물론 다양한 학번의 재학생 약 300명이 참여해 화합을 다졌다.

농구, 배드민턴, 피구, 족구, 줄다리기, 계주 등 다양한 체육 종목과 함께 각 전공과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부스가 마련돼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는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장단, 팀장단을 포함한 총 44명의 집행위원이 두 달 넘게 준비했으며, 각 학부·학과·전공 회장단과 집행위원회의 협조 속에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5월 7일에는 피드백 회의를 열어 향후 체육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42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그린'은 오는 8월 음성군에서 농민연대활동을 진행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설 예정이며 이어 9월 말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첨단융합학부, 자율전공학부 등 5개 단과대가 참여하는 연합축제를 개최해 이공계열 학생 간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서산농장과 스마트농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4월 23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현대서산농장과 '농업 연구 · 기술개발 및 현장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벼 신품종 개발, 국가 연구과제 공동 추진,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 농업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서산농장을 스마트농업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정밀 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 SIAL PARIS 2026서 강연



5월 15일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가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SIAL PARIS 2026'에서 SIAL 파리 혁신 식품상과 최근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했다.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이기원 교수 연구 기반 밥스누(BOBSNU), 푸드테크 베스트 프라이즈상 수상

6월 9일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이기원 교수의 약콩 파이토케미컬 연구를 기반으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밥스누가 '월드푸드테크 컨펙스 2026'에서 혁신 푸드테크 베스트 프라이즈상을 수상했다. 업계에서 '콩박사'로 알려진 이기원 교수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의 시너지를 설계하는 파이토슈티컬** 기술을 개발했다.

김형서 밥스누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이기원 교수를 비롯한 밥스누 연구진의 성과가 세계 무대에서 검증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생리활성 물질.

**파이토슈티컬(Phytoceutical): 식물(Phyto)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식물 유래 기능성 소재 또는 제품.

베트남 안장대 교수진 초청 연수 실시



5월 18~22일 농업생명과학대학은 KOICA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안장대학교 보직 교수들을 초청해 리더십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대학 발전 전략과 국제화, 농업 분야 산학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며 양 대학 간 협력 기반을 다졌다.

서울대학교 역사기록관 상설전시장 개관



서울대학교 역사기록관 상설전시장이 75동(융합관) 1층에 개관했다. 전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대학 재건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한 서울대인의 활동 등 서울대학교의 주요 발자취를 담고 있다. 관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산림과학부 여환명 교수, 2026년 세계목재과학기술대회 개최



산림과학부 여환명 교수(한국목재공학회 회장)가 이끄는 한국목재공학회는 6월 7~1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세계목재과학기술대회(SWST International Convention)를 개최했다. '목재자원 이용과 목재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31개국 120개 기관의 전문가 4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목재 과학과 목조 건

축, 목질계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연구시설 견학과 산업체 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의 역할을 조명하고 국제 협력 확대의 장이 됐다.

식물생산과학부 김도순 교수팀, 열 영상 활용 제초제 진단 기술 연구 발표



4월 2일 식물생산과학부 김도순 교수는 한국농약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식물영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초제 약효 진단 연구를 발표했다. 교수팀은 열영상 카메라와 엽록소 형광 분석을 활용해 제초제 효과를 기존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인사 흉상 이전 설치 제막식 개최



6월 23일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중앙홀에서 '대학 주요 인사 흉상 이전 설치 제막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대학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조백현 초대 학장, 이창구 박사, 김호식 박사, 류달영 교수의 흉상을 중앙홀로 이전 · 설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중앙홀 2층 로비를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해 구성원과 방문객에게 대학의 정체성을 알릴 계획이다.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장판식 교수,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상 수상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장판식 교수가 식품과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 성과와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식물생산과학부 강병철 교수, 한국육종학회 연구대상 수상



식물생산과학부 강병철 교수(현 학장)가 고추 분자유전학 연구와 종자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육종학회 연구대상을 수상했다.

식물생산과학부 최도일 교수,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수상



4월 21일 식물생산과학부 최도일 교수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

식물생산과학부 전창후 교수,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장 취임



4월 30일 식물생산과학부 전창후 교수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취임했다.

식물생산과학부 손정익 교수, 원예학회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 수상



5월 22일 식물생산과학부 손정익 교수가 우수한 연구 성과와 높은 학술적 영향력을 인정받아 한국원예학회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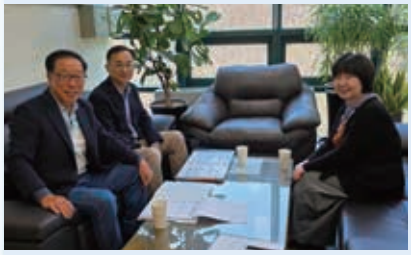
식물생산과학부 이효범 교수, 원예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5월 22일 식물생산과학부 이효범 교수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원예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농생대 동창회 소식

동창회 회계감사



4월 7일 화요일 75-1동 207호에서 동창회 회계감사가 실시됐다. 신창근, 이용균 감사는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음을 확인했다.

2026년 상임부회장 · 상임이사 회의



4월 8일 수요일 75동 306호에서 2026년 상임부회장 · 상임이사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의 주요 회무를 보고하고, 명예의 전당 헌정자와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선정자를 추인했다.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1학번 3차 회의



4월 23일 목요일, 파스텔시티 긴자에서 '상록의 날' 준비를 위한 91학번 대표자 3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세부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했다.

동창회보 제111호 발행



동창회보 제111호가 2026년 5월 1일 자로 발행돼 동문들에게 발송됐다.

2026년 91학번 주관 상록의 날

5월 9일 토요일 201동 101호 대강당에서 91학번 주관 상록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동창회 정기총회



에 이어 2부 스승님 및 선배님 모시는 날 행사와 서울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됐으며, 3부에서는 축하공연 두레와 퀴즈게임 '도전! 골드바를 찾아라', '달고나 게임' 등이 펼쳐졌다.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



6월 20일 토요일 201동 101호 대강당에서 2026년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진행하지 못한 2025년 제10기 헌정식을 함께 진행했으며, 정영선(농학60) 동문과 故김상진(축산68) 동문이 각각 제10기와 제11기 헌정 인물로 이름을 올렸다.

각 학과 동문회 소식

임학동문회 봄 소풍



4월 11일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에서 임학동문회 봄 소풍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과 교수, 가족 등 24명이 참석해 숲해설사의 안내로 수목원을 둘러보며 다양한 수목과 봄꽃을 감상했다.

농공 동창회 대선배의 날



5월 7일 농공동창회는 강원도 평창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과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서 '2026 대선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목장 시설을 견학하고 송아지 급유 체험과 정원 산책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축산학과 동창회 축산의 날



5월 9일 서울대학교 버들골에서 축산학과 동창회의 축산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과 재학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캠퍼스 투어와 재학생 밴드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하며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식품공학과 홈커밍데이



5월 16일 서울대학교 버들골 잔디광장에서 식품공학과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 교수, 대학원생, 재학생 등이 참석해 식사를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문들은 행사 협찬과 채용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재학생들과 소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농공 동창회 제1회 친선 골프대회



5월 29일 농공동창회는 당진 파인스톤CC에서 제1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64명의 동문이 참가해 친선 경기를 펼쳤으며, 경기 후에는 만찬을 함께하며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산업인력개발학과 동창회 춘계 행사



5월 30일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농업교육과(교육 및 지도 전공) 및 산업인력개발학과 춘계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윤상만(농교육85) 동창회장의 안내를 받아 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광교산과 광교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동문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농경제과 동창회 봄 정기 산행



6월 13일 농경제과 동창회는 봄 정기 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동문들은 관악산 무너미고개에서 출발해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을 거쳐 안양유원지에 이르는 코스를 함께 걸으며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하고 동문 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래(농기계82) 인천시 남동구청장 당선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이병래(농기계82) 동문이 인천시 남동구청장에 당선됐다. 이병래 당선인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남동의 기분 좋은 변화'를 책임감 있게 실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환의(축산63) 강릉최씨대종회 회장 취임



5월 22일 최환의(축산63) 동문이 강릉최씨대종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회장은 양양 출신으로 농과대학 졸업 후 남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박정주(농경제87) 충청남도 홍성군수 당선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박정주(농경제87) 동문이 충청남도 홍성군수에 당선됐다. 박정주 당선인은 "군민과 약속한 '홍선 경제 대혁신'을 실천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훈동(농학63) 수원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임명



김훈동(농학63) 동문이 수원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수원 출신으로 농과대학 졸업 후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회장을 역임했다.

엄인철(천연섬유91)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취임



7월 1일 엄인철(천연섬유91) 동문이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엄인철 학장은 경북대학교 바이오섬유소재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동문 경조사(2026.4.1.~2026.7.31.)

애사

[본인상]
고재덕(산림자원92) 본인상 4월 12일 발인
김한규(산림환경06) 본인상 4월 23일 발인
류시혁(임학84) 본인상 4월 29일 발인
류중욱(원예96) 본인상 5월 30일 발인
문윤수(잠사64) 본인상 6월 13일 별세
문재유(잠사58) 본인상 7월 27일 발인
민대홍(농공54) 본인상 4월 21일 발인
박창수(농토목85) 본인상 6월 28일 발인
박판규(농공55) 본인상 6월 17일 발인
신재익(농화학60) 본인상 4월 18일 발인
이현규(식공82) 본인상 6월 5일 발인
황철호(임산72) 본인상 7월 14일 발인

[가족상]
강문성(농토목86) 모친상 7월 13일 발인
고재갑(농토목92) 부친상 7월 18일 발인
구자협(식공88) 모친상 5월 18일 발인
김내현(원예91) 빙부상 6월 25일 발인
김대식(농기계82) 빙부상 6월 23일 발인
김문기(농토목80) 모친상 4월 23일 발인
김윤용(농토목87) 빙모상 6월 24일 발인
김지학(임학75) 빙부상 4월 14일 발인
김지훈(농토목89) 부친상 5월 17일 발인
김환수(식공98) 부친상 7월 28일 발인
남주석(농기계00) 부친상 6월 17일 발인
도성해(농교육88) 부친상 7월 27일 발인
박봉기(농토목82) 빙부상 6월 22일 발인
박영구(농토목86) 부친상 5월 25일 발인
박혜랑(원예 석05졸) 시부상 4월 23일 발인
배영민(농기계90) 부친상 6월 19일 발인
백주현(농기계91) 부친상 4월 2일 발인
서상교(농토목76) 빙모상 4월 10일 발인
손경현(식공81) 빙부상 7월 11일 발인
신동호(식공96) 장인상 4월 7일 발인
신종헌(식공90) 빙모상 4월 25일 발인
심재용(식공87) 부친상 6월 21일 발인
원정윤(농토목89) 모친상 5월 26일 발인
유기섭(농토목88) 빙부상 6월 24일 발인
윤상기(식공83) 빙부상 4월 30일 발인
이운택(식공83) 모친상 5월 11일 발인
이진희(식공81) 모친상 7월 26일 발인
이태근(농학78) 모친상 6월 18일 발인
이현규(식공82) 빙부상 5월 16일 발인
임상준(농토목85) 부친상 4월 16일 발인
전창후(원예83) 빙모상 7월 20일 발인
정기창(임학87) 모친상 6월 5일 발인
조영호(임학84) 모친상 5월 6일 발인
최은수(농토목78) 부친상 7월 16일 발인
최인호(산림자원95) 부친상 7월 12일 발인
최정진(작물생명18) 조모상 7월 1일 발인

경사

김병진(농토목81) 장녀 결혼 6월 7일
김재갑(농학79) 딸 결혼 6월 14일
김종덕(농교육85) 장남 결혼 5월 9일
김태형 바이오시스템공학 교수 결혼 7월 4일
노재문(식공85) 아들 결혼 6월 20일
박상배(바시공12) 동문 결혼 4월 19일
박영수(농경제67) 아들 결혼 7월 18일
서광섭(농토목79) 장녀 결혼 6월 14일
신수철(원예86) 장남 결혼 5월 17일
안상용(농토목81) 차녀 결혼 7월 19일
안장우(식공82) 아들 결혼 4월 11일
윤석환(식공87) 딸 결혼 5월 25일
이수길(농토목81) 차남 결혼 6월 7일
이영주(임학 박07졸) 자녀 결혼 4월 4일
이찬용(식공79) 아들 결혼 4월 5일
이행우(농토목82) 장녀 결혼 5월 1일
임영오(농교육78) 딸 결혼 4월 12일
임춘선(식공81) 아들 결혼 5월 23일
임효선(농토목87) 장녀 결혼 4월 25일
장재호(식공86) 딸 결혼 4월 11일
정태곤(농생물82) 딸 결혼 5월 2일
조윤제(식공82) 딸 결혼 7월 11일

동창회와 상록문화재단에 후원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 4. 1. ~ 2026. 7. 31.)

동창회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상록문화재단 농협 301-0068-1319-91 (예금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상록문화재단, 모교 발전재단에 농생대 연구 인프라 개선 위한 1억 원 기부



2월 19일 상록문화재단은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에 발전기금 총 1억 원을 전달하고 기부식을 가졌다. 기부금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연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정기금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위임됐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상록문화재단에 감사패와 고지도를 전달하고, 서울대학교 본부 명예의 전당에 현판을 헌정했다. 이어 강병철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은 200동 기부자의 벽에 상록문화재단 현판을 새기고 기념식을 마련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1,0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김상석(농생물68) ㈜바이오리더스 대표이사	농생대 91학번 후원금	박식순(농교육77) KS그룹 회장 동창회장	이종기(농화학75) 오미나라 대표

3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김홍기(농학61) 신우산업(주) 대표	고상운(임산82) (유)에코텍코리아 대표	광교동문회 회장 김인태(임산77)	김남식(축산84)	이원제(임학64)

동창회는 회원 여러분의 정성 어린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동창회비는 동문 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을 위한 행사, 재학생 장학금 지급, 『동창회보』 발간 등에 사용됩니다.
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명단에 누락된 분은 동창회(전화: 02-880-4525 또는 문자: 010-8823-863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입 》 안내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동창회 임원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비 입금 시 '홍길동농공63' 식으로 본인 이름을 밝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1-0036-4788-41 (예금주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임원					일반회원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연회비	종신회비
3,000,000원/년	300,000원/년	200,000원/년	150,000원/년	100,000원/년	30,000원/년	300,000원

회비 · 찬조금 납부자 명단(2026. 4. 1. ~ 2026. 7. 31.)

종신회비

김광오(농토목83)
문성호(농화학82)
박재인(임학 석84졸)
안병수(농화학76)
양선영(원예91)
이성규(임학71)

감사회비

이용균(농기계82)

상임부회장회비

김상석(농생물68)
박종문(임산76)
서덕호(농경제85)
오경수(농교육77)
유향하(농가정68)
이종식(농토목72)
정철영(농교육77)
조재구(임학83)

부회장회비

김병운(원예69)
김영배(농기계78)
김왕기(농경제82)
김종훈(농교육70)
김주양(농학86)
김진석(농교육69)
심상우(축산57)
오동환(농기계84)
이선하(농교육65)
이우신(임학75)
이윤호(잠사68)
정선자(농가정62)
최봉영(식공75)

상임이사회비

김용노(식공88)
신경수(농토목84)
차경진(농기계81)

이사회비

서훈희(농생명 석12졸)
이동영(농경제04)
이진호(농학90)
한호윤(임산98)

연회비

강기호(임학85)
고한종(농생명 석01졸)
구호광(농경제70)
김동선(농토목85)
김문담(축산57)
김삼중(농화학90)
김상균(임학75)
김재윤(농생물64)
김재학(농학53)
김정인(축산65)
김주영(농경제19)
김지범(축산84)
김진수(농공66)
김천묵(임학65)
김태영(농기계82)
김태희(농경제57)
김학기(농생물65)
김현용(농기계92)
목진완(농기계77)
민홍진(임학88)
박동섭(축산86)
박상만(임학65)
박성현(원예68)
박윤근(농공55)
백병기(축산77)
서완수(농경제58)
서원석(농교육79)
서정근(농학59)
석동권(농교육77)
송기언(잠사55)
안수구(임산73)
양범산(농학55)
양인준(농교육 석19졸)
양종석(축산88)
유유상(농가정68)
유형재(바시공19)
이계형(농화학77)
이동찬(농기계82)
이장훈(농학84)
이재천(농기계76)
이정자(임학85)
이창희(농토목78)
이희수(농교육80)
장기일(응생화17)
장성종(축산58)
전갑덕(임학61)
전진표(임학 석88졸)
정관모(축산54)
정인모(잠사70)
조성수(농경제65)
조영호(임학84)
조태호(농경제54)
최기화(농경제73)
최송웅(임학60)
최연호(축산74)
최영환(식공86)
최우리(바시공 석22졸)
최준영(조경91)
홍대림(농학64)

동창회 찬조금

(2026.4.1.~2026.7.31.)

이헌국(농가정61)	300,000
박규택(농생물63)	100,000
한휘언(축산62)	100,000
김태영(농기계82)	70,000
안수구(임산73)	70,000

2026년 상록의날 찬조금

(괄호 안은 학과 대표)

농가정91(조진호)	3,050,000
임산91(연창훈)	4,000,000
농생물91(강태선)	100,000
	*추가납부
임학91동기회	650,000
조경91(송영탁)	2,500,000

상록문화재단 기부자

(2026.4.1.~2026.7.31.)

김상석(농생물68)	10,000,000
농생대 91학번 일동	7,000,000
박식순(농교육77)	6,000,000
이종기(농화학75)	5,000,000
김홍기(농학61)	3,000,000
고상운(임산82)	3,000,000
광교동문회	1,500,000
김남식(축산84)	1,000,000
이원제(임학64)	1,000,000
양선영(원예91)	200,000
김병화(농학55)	200,000
김태영(농기계82)	110,000
최치민(식공90)	120,000
안수구(임산73)	100,000
이동찬(농기계82)	100,000
임종덕(농생물99)	80,000
전창후(원예83)	40,000

상록재단 동창회 지원금

동창회보 111호 지원	6,000,000

[동창회보 인쇄 협찬 기업]

111호: KS그룹, ㈜선진

사계절 아름다운 새들만의 자연에서 자란 쌀

무기질이 풍부한 서산간척지 A·B지구에서
생산되는 쌀로 찰지고 식감이 부드러워 밥맛이 뛰어납니다.



농업회사법인 | 주 | 새들만

대표 윤석용(농학74) 동문

충남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 243-99

Tel. 041.669.8485 Fax. 041-669-8487

새들만 온라인 쇼핑몰